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2월 1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요즘과 같은 연말이면 더욱 불우한 이웃을 위해 마음을 쓰게 된다. 적게는 따뜻한 장갑 한켤레로 부터 '베품'이 행해지고 있다. 추운 겨울이 그래서 더욱 훈훈하게 느껴진다. 이같은 보시 실천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심해 이뤄진다. 보시는 불자가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덕목(육바라밀) 가운데 가장 수승한 바라밀이다. 물욕과 향락을 좇고 있는 현대인들이라지만 작은 보시행이 사회의 밝은 빛이 된다. 아직 우리사회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많다.
〈편집자 주〉

줄수 있는 것 다 주면…

한 장자는 자신 재산을 넷으로 나누어, 그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항상 이자를 늘여 가업을 유족하게 했고,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일용(日用)에 필요한 물건을 공급했고,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고아와 의지할 데 없는 노인에게 주어 네세의 복을 닦았고, 한 부분의 재산으로는 친척과 오가는 나그네를 구제하였다. 이같이 넷으로 나누어 벌이는 일이 끊어짐이 없었으니, 부자가 이어가면서 대대로 그것이 가업이 되었다.
〈심지관경〉

온갖 줄 수 있는 물건을 다 주는 것은, 부처님의 무상의 큰 묘지를 구하는 까닭이다. 〈십지론〉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면 무슨 잘못이 있으며, 헐벗은 자를 옷주어 감싸고 재앙에 빠진 자를 구해주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매굴마경〉

지혜로운 사람의 보시는 연민 때문이며, 남을 안락하게 해 주고자 하기 때문이며, 남으로 하여금 보시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며, 모든 성인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며, 온갖 번뇌를 깨고자 해서며, 열반에 들어 생존을 끊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바새경〉

만약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보시할 재물이 없을 경우에는 남이 보시를 행할 때에 수희심을 일으켜야 한다. 수희하는 복보는 보시와 매한가지여서 다를 것이 없는 까닭이다. 이는 아주 행하기 쉬운 일이니 누구라 불가능하랴.
〈인과경〉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할 때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며, 복전에 보시할 때는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우바새계경〉

"재물을 크게 모아놓고, 그 다음 한꺼번에 보시해야 하겠다"하지만 크게 모으기도 전에 일금이나 수화(水火)나 도둑에게 뺏긴다든가, 또는 그런 화를 면한대도 문득 죽게 되어서 보시할 겨를이 없어지든가 하고 만다. 이런 사람이란 우유를 한꺼번에 짜려 한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백유경〉

"동포에 나누는 불자 됩시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12일 출범

3월말까지 1차 모금활동 전개

조계종 범불교 운동 차원 추진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공동대표 지하스님 외 4인)가 지난 12일 조계사 불교회관1층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조계종총무원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하는 등 범불교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과보고와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의 법어 선언문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불교운동본부는 선언문을 통해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돕는 일은 불교의 동체대비 비폭력 무아일체 사상을 현실속에서 구현하는 불교인의 실천주의"라고 강조하고 "'한 중생이라도 지옥에 남아있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운 지장보살의 원력을 본받아 모두 분연히 일어나 모금운동을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집행위원장 인터뷰 4면〉

월주스님은 법어에서 민족의 통일은 비를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하고 "상호불신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칠보사조실 석주스님,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스님, 조계종포교원장 성타스님과 서영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불교운동본부는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1백일간을 1차 모금기간으로 정해 29개 참가단체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동포와 중국 조선족동포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후원금접수 문의 및 개설계좌는 02)3672-5373, 국민은행 818-21-0197-670 최석호(우리민족돕)이다.

조계종총무원은 지난 12일 우리민족돕기운동을 개탄음의 사회화운동 차원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총무원은 이에따라 곧 월주스님이 특별담화를 발표,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 범국민적인 동참을 위해 총무원장이 직접 참여하는 탁발을 통해 모금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돼 올해만도 약 3백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만성적인 식량난 때문에 6백50만명의 탈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성운 기자〉



◇3만원이면 북한주민 한 사람의 1년치 식량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창립을 계기로 동포돕기운동이 확산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2일 봉행된 불교운동본부 창립법회.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관계법 개정안 정각회 11일 의원발의

국회 정각회(회장 서석재 · 신한국당)는 지난 11일 소속의원 47명을 포함한 57명의 서명을 받아 불교관계법 개정안을 3당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농지법등 3개법안으로 △전통사찰보존구역규정 신설 △사찰의 권리구제조항 신설 △자연공원 사유지 이용료지급 △사찰의 농지취득권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통사찰이 불교교유의 수행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수 있도록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있다.

한편 정각회의 불교관계법 개정안 제출로 지난 11월 20일 국민회의 연등회가 발의한 개정안은 철회됐다.

잇단 정치성 법회 '수근수근'

종단연합회 · 종정협등 … "정법 흐린다" 성명서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가 옆풍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13일 대한불교종단연합회가 63빌딩에서 나라안정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를 연데 이어 17일 롯데호텔에서 호국안보를 위한 대법회를 개최하는 대한불교종정연합회(회장 대산 · 삼론종종정)까지, 그야말로 호국안보를 걱정(?)하는 불교계의 움직임이 군소종단들을 중심으로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과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들어 정부의 불교길들이기와 불교계분열정책에 편승하여 정치성행사를 잇달아 벌이는 것은 정법을 흐리게하는 온당치 못한 행위다"고 지적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대한불교종단연합회는 서경보스님 생전에 결성돼 이미 93년 1월 해체된 단체로 이를 최근 다시 부활하여 법회를 개최하는 것에대한 저의가 무엇인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한불교종정협의회도 지난해 6월 20여개 여타종단 종정스님들로 친목과 유대를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했다고 협의회측은 발표하고 있다.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21세기 한국불교계를 이끌어갈 젊은 일꾼을 찾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은 한국불교의 새장을 함께 열 새 인재를 모집합니다.

직 종	인 원	응시 자격
경력기자	0명	· 불교신자
수습기자	0명	· 4년제 대학졸업 · 예정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 · 면접
단, 경력기자는 1차와 면접에 한함
▲제출서류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이력서(명함판 사진 2매), 자기 소개서(원고지 5매 분량)
▲접수 및 문의 : 1996년 12월 24일(화)까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총무국
전화(02)737-8881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1996년 12월 28일(토) 오후2시 본사 사옥
· 인터넷 부다피아 검색 가능 (http://www.buddhapia.co.kr)
· 우편접수는 마감당일 도착 유효

대생용 미륵반가상 중 · 고교에 보냅시다


◇법등스님


◇김영윤회장

동참해주신 분

△혜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지원장: (11구좌) △법등 도리사 주지: 구미 금오공고 도개중고 해평중고(6구좌) △청수사 운오스님: 경주 양남초교(1구좌) △김영윤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 (3구좌) △조경옥: 선화여고(2구좌) △조영미: (1구좌)
〈12월 12일 현재 총 567구좌 접수〉

◇구좌단위로 참여합니다(1구좌 10만원)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25-0007-617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중앙승가대 정규대 인가

태고학원 법인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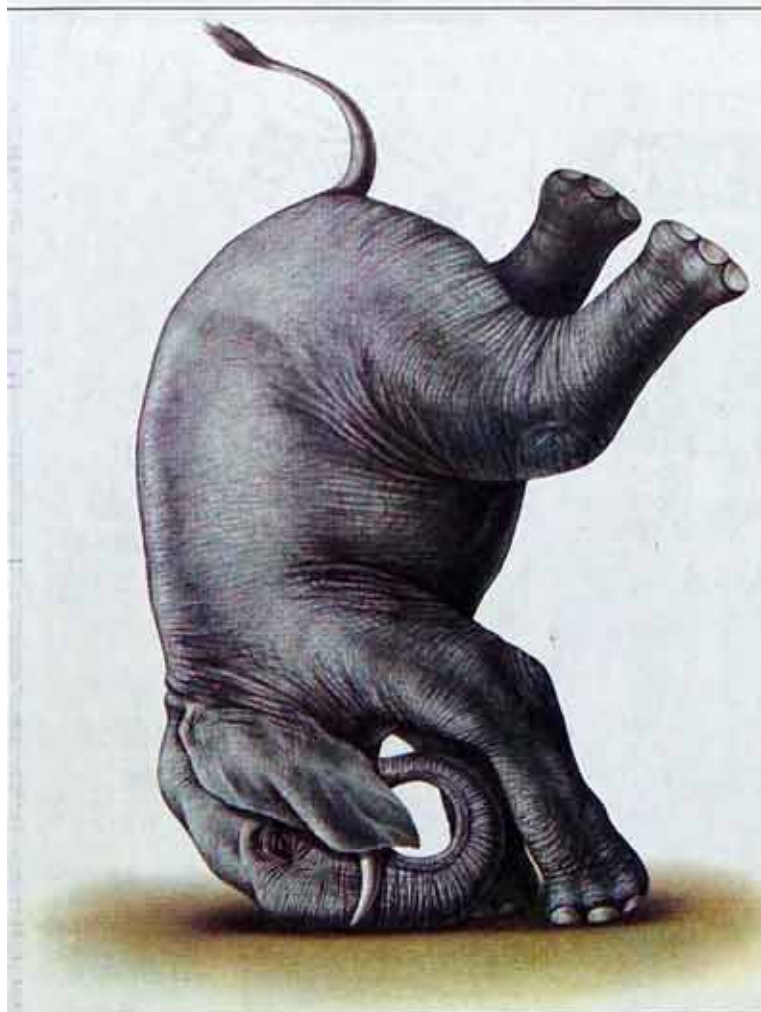
중앙승가대학(학장 지하)이 지난11일 정규대학으로 승격, 공식 인가받았고 이에앞서 지난 6일 동방불교대학이 학교법인 태고학원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지난 79년 학원설립을 인가받은 이래 17년 만에 정규대로 승격한 중앙승가대학은 현재의 안암동 캠퍼스에서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에 각 60명씩 1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또 중앙승가대는 김포학사로 이전후 증과, 대학원 설립, 사회교육원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98년 3월 개교예정인 동방불교대학은 입학정원 40명의 불교학과 단일과로 출발할 예정이며 경기도 용인시에 2만여평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충북 음성에 30만평부지를 물색중이며 10년계획으로 불교음악과 불교미술과 유아교육과 한의예과 등을 점차 개설할 계획이다.

사이비종교 척결대책 절실 15면
겨울방학 필독불서 24권 12면
불교극 '노미오와 주리애' 공연 1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지난 34년간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 중공업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무엇이든지 제대로 서는 법 -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입니다.
지난 34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첨단기술로 실현하는 풍요로운 21세기를 위해
효성의 도전과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안정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차단기, 전선류, 계전器, 몰딩기, 철탑설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등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차설비, 환경보전설비, 회학장치, 식도설비


자동화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계장설비, UPS, PLC 등 전력전자, 물류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제어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사 설

'한반도의 봄' 여는 동포돕기

불교계가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를 발족시킨 것은 참으로 법다운 걸음이라 하겠다. 당장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2천만 북한동포들을 위해 1천만 불자들이 힘을 모아야겠다. 또한 시급한 것이 연변을 비롯한 동북삼성(東北三省)의 교포들이다. 여행과 취업, 결혼과 유학을 빌미로 사기 당한 집이 한 집 건너라는 보도가 있었다. 혹은 충격에 반신불수로 손발을 떨고 있고, 빚더미에 집과 일터를 빼앗기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밤내 잠을 못이룬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인도적 견지에서만 아니라 그들 중국교포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교두보 혹은 완충지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민심을 잃고서는 한반도의 미래가 없다. 파렴치범을 잡는 것이야 공권력에 촉구할 일이고, 당장 그들의 재산상의 손실과 무너져버린 인심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민간의 협력이 당장 시급한 처방이다. 그런 점에서 불교운동본부에 거는 기대는 크다.

동서의 화해 무드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도 한반도의 봄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통일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풍문도 있고 북한과의 긴장과 대치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엇갈린 전망도 있다. 지금까지의 진전을 보건대는 후자가 더욱 정직한 관찰인 듯하다. 그동안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면한 식량위기와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그 과정에서 핵을 담보로 미국과의 협상에만 몰두했을 뿐, 남한정부는 철저히 배제해 왔다. 그래도 우리 정부와 시민들은 이념의 이름 아래 굶고 있는 한 핏줄 한 민족에게 쌀과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 이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는" 삼무(三無)의 순수 자비행이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디찬 질시와 부당한 트집이었다.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식량을 무상제공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심은 정세를 도외시한 정치외교적 실패로 지탄되기도 했다. 연세대에 모인 젊은 혈기들의 철없는 이상주의가 부른 폭력에다, 무장공비 사건으로 남북한의 이념적 긴장은 전에 없이 경화되고 심화되어 일촉즉발의 위기감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종교인들만이 현실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자비를 뭇생명 중생들에게 조건없이 베풀어야 함을 강조했고 실천해왔다. 우리는 현실의 논리도 존중해야지만 영원의 이상도 또한 그만큼 존중해야 한다. 이 둘은 수레의 두 바퀴마냥 하나도 결여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중도(中道)와 대승 중관(中觀)의 논리는 한 손으로 부정한 것을 다른 손이 긍정하는 쌍차쌍조(雙遮雙照)의 도리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불신과 대립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에 안정과 질서, 그리고 평화적 통일은 요원할 것이다. 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 너무나 달라진 문화와 사상, 체제를 통합시키기 위해서도 점진적 해빙과 접합의 실질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쌓인 업장은 부대끼면서 풀어야 한다. 서로의 오해와 아픔을 듣고 느끼다 보면 문제는 해소되며 그때 진정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일체감이 기약될 수 있다.

이번 발족을 계기로 그같은 불국토에의 염원이 아시아 전역에 사무치도록 하자. 벌써 29개의 신행단체가 수희동참할 뜻을 보였고 앞으로 더욱 큰 힘으로 자라나리라 한다. 그 원력이 모여 대해(大海)를 이루면 부처님의 인도적 원음(圓音)과 법(法)의 바퀴가 한반도를 비롯한 사유시방(四維十方)에 메아리칠 것이다.

열린마당

직장법희 대표자연수 현장

직장·직능법회 대표자연수회가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지난 7~8일 이틀 동안 경기도화성 신흥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에서 17개 직장·직능법회 대표자 22명이 참기했으며, 정락스님(용주사주지)과 박광서교수(서강대, 우리는선우 이사장)의 특강과 직장·직능법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좌담회, '직장·직능법회 활성화' 주제의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토론 및 특강 요지를 간추린다.

〈편집자 주〉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한 직장·직능법회 대표자연수회가 지난 7~8일 경기도 화성 신흥사에서 개최됐다.

정락스님 '포교하는 불자가 되자'

"지금은 우리불교시대"… 자성의식 절실

부처님시대, 아라한불교시대, 보살불교시대를 거쳐 현대사회의 불교는 '우리불교시대'라 부를 수 있다. 보살·민중·대중불교는 자기와 타인을 이원화한다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나를 제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두가 보살이 되어야 하고, 우리불교시대를 선언하고 살아가야 할 때이다.

어느 종교든지 다음의 세가지가 종교를 이루는 기본이다. 불교는 무엇을 믿으며, 그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가. 불교는 삼보를 믿는다. 이때 믿음은 기독교의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는 다르다. 불교에서는 삼보에 귀의해서 스스로가 부처님이 된다는 뜻이다. 원효는 일찍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로 표현했다. 금강경 열반경 등 대부분의 경전에서는 성불의 가능성을 설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목적이라는 말보다 원력 또는 발원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사홍서원이 불자들의 발원이 되어야 한다. 또 불자들의 올바른 생활자세는 육바라밀의 실천에 다름아니다. 육바라밀이 불자의 생활지침이 되어야 한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다음의 다섯가지를 실천할 때 참다운 불자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부처님께 귀의하는 신행생활이 있어야 한다. 불교는 믿음만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다. 가르침의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이것이 둘째이다. 셋째는 5계를 지키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넷째는 염불이든 참선이든 발심수행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은 전법도생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해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특강요지

불교의 연기론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든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할 수 없고 다만 다른 사물들이나 인간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로서만이 존재하고 인식된다고 한다. 따라서 불교를 바르게 믿고 실천한다 함은 결코 자기자신이나 기껏해야 가족만을 위한 기복에 머무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어떤 불자냐를 되새겨볼 때이다. 불국정토, 즉 사회의 불교화는 불교의 사회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인간은 더 이상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이기적 행위나 이웃과 사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서서히 자기에게 그 화가 돌아온다는 공업중생의 의식전환만이 중생고와 사회고를 치유할 수 있다는 철저한 자각이 필요하다.

'보현행원품'에서도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비심으로 체를 삼으시는 까닭에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발하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등정각을 이룬다.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 속한 것이니 중생이 없으면 일체 보살이 마침내 무상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간절히 당부하고 있지 않은가. 불교의 사회적 기능 회복에 불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나서자.

박광서교수 '미래사회와 불교'

'사회로 열린 불사' 지향 공업중생 실현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불자들의 신앙행태와 불사하는 모습은 어떠한가. 불교 인재를 양성하고 불교적 가치관을 이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각종 교육불사, 복지불사에는 너무도 인색하여 이러다가는 불교가 사찰내에 갇혀서 무기력한 종교, 반시대적 종교로 전락해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회로 열린 불사'에 더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종단행정지원 필요

○… '직장·직능법회 활성화' 주제 토론회에서는 조직화에서부터 법회운영에 이르기까지 현안에 대한 관심사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종단의 행정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선 광범위한 인적네트워크의 활용이 제안됐다. 이를 위해 각종 공식 비공식모임을 통해 중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불자에 대한 파악과 공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또 직장법회의 경우, 소속직장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이미지 확산을 이뤄 미가입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BS불교연구회의 경우, 불교관계 문제가 발생하면 창구역할을 완수, 사내에서도 매우 신임이 높다는 점이 법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사초청 어려움

○… 법사스님 초청이 쉽지 않다는 것도 공통적인 불만이었다. 이는 포교원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포교원은 법회의 성격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법사를 확보, 각 법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사 요청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사비가 1백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 법사초청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울산 삼성정밀불자회의 경우는 지역의 스님들을 법사로 초청하며, 법사비는 말그대로 거마비 정도로 지급하고 있다며 지역사찰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법회 운영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회원들에게 '왜 법회에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신념과 흥미와 유익함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재를 꼽았다. 신앙체험담 소개, 소규모 동우회의 조직을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포교원에서 동종업종, 지역모임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는 건의도 전달됐다.

○… 관혼상제의 불교식 의식의 제정과 보급, 상조회의 활성화가 곧바로 직장·직능법회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봉사를 통해 종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요지

출·재가역할 분담

○… 포교원장 성타스님은 이같은 의견을 "포교종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 성타스님은 또 "출가 2부중만 불교의 구성원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출가자는 정신적 귀의처로서의 수행자상을 보여줘야 하고, 재가자에게는 포교와 신행단체 활성화라는 몫이 주어졌다"며 출가 재가 역할분담론을 펼치기도 했다.

○… 한편 이번 연수는 종단 역사상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참석율이 저조해 법회 운영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직장·직능법회 대표자 연수의 애초 목적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는 평. 대구교도소불심회 이무양회장은 "회원의 참석율이 저조해 이번 연수를 통해 묘책을 배우려 했는데 아쉬웠다"며 포교원의 치밀하지 못한 연수회 준비를 비판했다.

현대만평

박구원



잘못된 농지법 때문에…

목어

탈북드라마 그 이후

영화 '싸운드 오브 뮤직'의 뒷부분은 손에 땀을 쥐게한다. 관객들은 대령의 가족들이 국경을 무사히 넘기를 바라면서 숨을 죽인다. 김경호씨(62)와 최현실씨(57) 일가 17인의 44일 탈북드라마는 영화 이상으로 극적이었다. 10년 같은 10분을 보냈고, 체포에 대비하여 극약을 갖고 다닐 정도로 그들은 탈북에 목숨을 걸었다.

"받아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현실씨가 김포공항에서 말한 귀순소감이다.

꿈에도 그리던 서울. 그들에게 있어 서울은 극락일 수 있다.

그들은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엄청나다" "불바다 같다"고 외쳤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다"는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였을때 꿈과 생시가 둘이 아님을 실감토록 해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앞서 온 일부 귀순자들은 말하고 있다. "임시 수용소의 생활이 사회생활보다 편했다. 밖에 나오니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며 풍습과 생활방식 차이로 적응이 잘 안됐다." 탈북귀순자들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국민들이 귀담아 들어야할 말이다.

통일원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귀순자 6백37명중 80%가 제대로 적응 못하고 40% 정도는 월 1백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귀순자관리는 떠들썩한 환영과 정착금지급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체제를 이해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때마침 교계에서는 지난 12일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가 발족됐다. 북한주민돕기도 해야겠지만 귀순자에게도 관심을 갖자.

보도에 의하면 3천여명의 탈북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떠돌고 1천2백여명이 우리 공관에 망명을 신청해 놓았다고 한다.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의 기운을 읽을 수 있는 종교인과 지식인, 국제정세를 넓고 바르게 볼수 있는 정치인들이 중지를 모아 민족의 내일을 슬기롭게 열어야만 '통일한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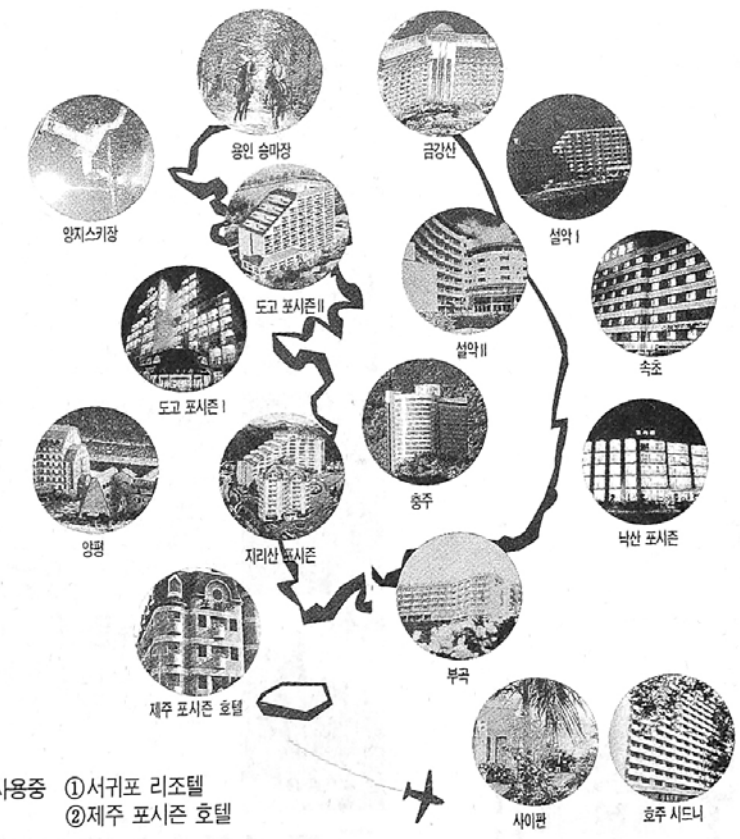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학우를 형제처럼

같이 배우는 사람을 공경하되 형제처럼 생각하고, 겉으로는 몰라 입의 허물을 단정히 하고, 안으로는 자신의 마음에 허물이 없도록 단속하라.

〈불반니합경〉

협찬 법련사 주지 현호 TEL.(02)733-5322



사용중 ①서귀포 리조텔 ②제주 포시즌 호텔

뱀사골 품안 지리산 포시즌 콘도

유황 온천의 명성 도고 포시즌





불자님 가정의 겨울 휴가를 책임지겠습니다

특전
- 무이자·무보증 계약 즉시 카드 발급 및 사용
- 성수기 제외 사용일수외 추가 권리보장
- 무공해 주말 농장 이용
- 일시불10% 할인 (신용카드 할부가)
- 스키+승마 이용 혜택

가족과 함께 자연과 함께 포시즌콘도미니엄

(株)伽元住宅 (株)伽元레저産業 (주)와이·케이 물산

동시분양

■ 정상분양가 (30일 기준)

17평형	1,100만원	23평형	1,500만원

■ 특별분양가(15일 기준 - 도고 2차)

평형	특별분양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17	645만원	165만원	400,000×12개월
25	945만원	225만원	600,000×12개월

· 상기 금액은 회원제 기준임

■ 온라인 구좌안내 예금주: (주)가원레저

농협	366-17-001354	국민	839-25-0009-357
제일	436-20-074674	외환	211-22-01205-8

· 조기마감 될 수 있사오니 확인후 입금바랍니다

회원사업부 : (02) 3452-8998(代)

직통:(02)562-3225 법명 도인

자율성 강화·행정간소화 '진일보'

불교관계법 국회상정 내용과 의미

건축법 상관없이 전통사찰건조물 신·증축 가능
사찰명의 농지취득 허용…경내지 보호 제도화

지난 11일 정각회가 의원발의한 불교관계법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불교의 자율성 강화이다. 그동안 전통사찰주지가 취임후 15일이내에 문체부장관에 신고해야했던 전통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 제4조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해 불교의 자주성을 회복하도록 했다. 또한 전통사찰 경내지보존구역을 신설(전사법 제2조 제6호)해 경내지 규정만 있고 보존규정이 없어 행정관청, 공원관리소와 빚어온 마찰을 해소토록했다. 이 조항신설로 사찰주변에서의 영업행위금지 및 불교목적이외의 건물을 함부로 세울수 없도록 하는등 사찰보호기능을 강화했다.

전통사찰 소속종단을 관리주체로 규정했다는 것도 주목된다. 그동안 전통사찰 경내지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고자할 때 문체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했던 제9조 경내지 보호조항에 문체부장관이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토록해 종단의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

여기에 전통사찰토지가 공원에 편입된 경우 공원사업에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하도록 했다. 대부분 전통사찰주변은 공원으로 개발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내지가 공원구역에 편입되면서 받게되는 각종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제33조제2항)에는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에 편입된 사유지의 이용료를 공원사업 기여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행정의 간소화다. 전통사찰이 신증축할 경우 전사법과 건축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허가상 물의가 많았다. 특히 전통사찰은 건축법적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5년 건축법개정과 함께 건축법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최근에 이루어진 전통사찰내의 불사는 대부분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6조 허가사항에서 전통사찰 건조물은 문체부장관이 건축법 소관 관청과 협의, 허가하도록 규정해 건축법적용없이 신 증축이 가능토록했다. 이는 특별법인 전사법이 건축법에 우선해 건축법에 따른 건교부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셋째는 사찰명의 농지 취득이다. 농지법 개정안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안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무소유와 선농일치를 표방하는 불교계는 개인명의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농지법개정안은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이 원형복원 및 이의 보존 관리, 불교 고유의 수행을 위해 경내지에 인접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하는것(농지법 제6조 제2항제9호아목)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특히 농지법은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헌법 제121조1항)을 규정하고있어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그러나 농지취득제한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성격이 보장되거나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농민도 농지를 소유할수 있도록 하고있는 예외조항(농지법 제6조2항)에 따라 전통사찰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농지법으로인한 불교계의 피해는 대단하다. 조계종 기획실의 조사에 따르면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전통사찰 농지 203,412평방미터가 수용되었으나 사찰이 농지소유를 할수없어 토지유실을 지켜보기만 하고있는 실정이다. 사찰보존과 유지에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남원 실상사의 경우 사찰진입로 확장 및 주차시설등 도량정비를 위해 사찰인근 농지를 매입하려했으나 사찰명의로 농지매입이 어려워 불사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불교계는 이번 불교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농지법개정에 많은 기대를 걸고있다.

이준엽 기자



팔만대장경 판각 재연 지난 7일 해인사 구광루에서 열린 팔만대장경 세계유산등재기념 '팔만대장경 판각 및 인경(印經) 재연행사'에서 스님과 외국인 등 일반인들이 직접 판각에 참여했다. 〈해인사=이윤호 기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찰의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나아가 불교의 환경운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지난 13~14일 해인사에서 개최됐다.

'팔만대장경 세계문화유산지정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불교의 환경운동과 사찰환경보존'을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 이번 '불교지도자 환경워크샵'에서는 불교환경운동 방향, 사찰환경 및 국립공원 보존 등에 대한 실태와 대응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불교 환경운동과 사찰보존' 워크숍 지상중계

"사찰·신도·주민 공조 환경운동 펼때"

현대인 탐욕버리도록 중도·무아사상 자각시켜야

첫날 기조발제에 나선 3명의 발제자는 사찰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용정 교수(동국대 철학과)는 '불교의 생명사상과 환경운동'에서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과학이 불교의 중도·연기·무아·자비사상을 과감하게 도입수용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의 환경위기가 인간생존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 김교수는 자연에 대한 보호와 공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탐욕에 의한 과소비 문화에 물든 현대인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자각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불교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을 통해서 인간자신의 탐욕을 진정시키는 자기정화만이 자연의 정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응경교수(동국대 조경학)는 '사찰환경보존의 문화적 의의'에서 사찰환경이란 사찰의 다각적인 역할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종단과 사찰이 적극적으로 사찰환경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종단과 사찰의 사찰환경보존 대책으로 △생활규범으로서의 불교적 환경윤리 정착 △사찰환경권 정립과 사찰환경보존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침서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류창희씨(자연생태연구소마당 소장)는 '국립공원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불교의 대응 방안'에서 사찰 주변을 비롯한 국립공원 자연지역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자연생태계 조사 등을 통한 사찰 주변 지역 등에 대한 개발 및 보존방안 마련 △환경백서 및 연구 자료집 발간을 통해 사후 제기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대응 등을 제시했다.

둘째날의 분과토론 주제발표는 첫날 기조발제에서 제기된 제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함께 불교계의 무책임한 환경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2분과 주제발표에 나선 오구균교수(호남대 조경학)는 불교계의 국립공원보존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심을 속속들이 파헤쳐 눈길을 끌었다. 오교수는 '국립공원을 지키는 불자의 운동' 주제발표에서 불교계는 국립공원내에서 4.93%나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지난 30여년간 국립공원 보존노력을 소홀히 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사찰수입과 이익사업에만 민감하게 행동해 왔을 뿐 국립공원에서 여러가지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호씨(대한불교청년회 정책국장) 역시 사찰환경운동이 피해 발생에 따라 수세적·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행태를 꼬집었다. '사찰환경운동과 지역운동' 주제발표에서 김씨는 사찰의 지도자와 신도조직이 불교다운 환경운동을 몸소 구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환경을 보존하고자 노력할 때 종교적 신념과는 별개로 지역적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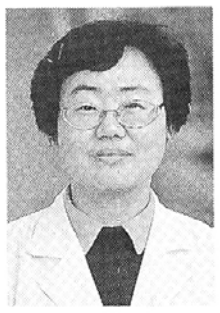
시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얼마 전 약물중독에 대한 두 건의 구속기사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하나는 전직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스님까지 포함된 지식층이 약물을 복용해 왔다는 기사였다. 대통령의 아들은 아버지가 대통령이었기에 어린 시절을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동료들과 격리된 채 보내야 했고, 친구도 한 명 없이 살아오며 너무나 외로워서 약물을 사용했다고 한다.

'악마의 유혹' 마약·도박

학처럼 우아했던 그의 어머니가 살아 있었던들, 아버지가 대통령만 아니었던들, 그리고 부모 모두 비참한 마지막을 겪지만 않았던들, 그의 모습은 달라져 약물유혹에 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아 사방가 여자와 약을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려한 그의 모습에 우리는 우울해진다. 한때 그는 그 또래의 선망의 대상이요, 우상이기도 하였다. 우리 진료실에는 자칭 그의 여자친구이거나 애인인 젊은 여성이 숱하게 거쳐 갔다. 소위 애정망상이다. 정신병적 망상의 내용이나 대상은 그 시절의 사회상이나 인기인물을 반영한다. 그는 그 또래의 우상에 스스로 먹칠을 하였다. 우리는 대통령 가족의 인간적 몰락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상의 몰락에 마음 아파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에게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친구임을 그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권 정 화
〈서울시립정신병원 과장·醫博〉

그러나 구도의 길을 가며 중생을 구제해야 할 스님마저 약물을 사용했다는 기사에는 아연할 수 밖에 없다. 스님이라면 피로회복제로, 술 안 취하는 약으로, 혹은 살빼는 약으로 속여서 돈을 벌려는 무리에게 속을 처지나 신분은 아니지 않는가? 산사에서 풍경소리와 독경소리, 그리고 그윽한 차향기 대신 흰색 분말이 현실도피수단으로 사용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으랴.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리도 병들게 되었는가? 스님이 염불아닌 약물에 마음이 가 있었으니 어디 될 법이나 한 일인가.

나와 남이 함께 깨달음을 얻는데 출가의 목적이 있다고 하였던가. 그냥 기분 좀 좋아지려고, 재미삼아, 혹은 친구가 사용하니까 함께 헛된 것에 매달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어디 약물 뿐인가. 언제나 사회면 한 쪽에는 폭력, 살인, 도박에 관한 기사가 차지하고 있다. 도박 역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한다는 점에서 약물과 도박은 일치한다. 오로지 나만을 아는 이기적이고, 물질만능에 사로잡힌 사회가 약물중독과 도박을 양산한다. 성장과정에서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하고 과잉보호되어 자아와 초자아발달이 제대로 안되면 약물이나 도박으로 쉽게 빠지게 된다.

한번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늪보다 더 빠져 나오기 어려운 것이 바로 약물과의 싸움이다. 약물이 주는 쾌감은 일시적일 뿐 약에서 깨어나면 또 다시 약물을 사용했다는 자괴감과 후회와 절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는 이 절망을 잊기 위하여 다시 약물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약물남용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은 처음부터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일단 약물에 손을 대었다고 하면 싸움에서 이미 진 것이다. 싸움에서 지고 사회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그 자신이지만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도 어느새 병들게 마련이다.

마음 열고 세상을 보라

온 세계가 고통으로 차 있어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면 약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든 일은 자신 속에 있다. 지금의 고통과 외로움이 앞으로 마냥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고통을 이기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자신을 믿으면, 어두운 생각은 사라지고 밝은 생각이 저절로 자리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이다.

세상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친구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탓하며 약물에 빠진 모습과, 참된 구도의 길을 포기하고 헛된 약물을 찾은 모습에서 제탓인 줄 모르고 남의 탓만 하며, 모든 것을 쉽게 얻으려 하고 쉽게 포기해 버리는 오늘날의 세태를 본다.

慶 정규대학 中央僧伽大學校 '97學年度 新編入生 募集 개편인가 祝

본교는 '79년 2월에 개교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한 종단에서 운영하는 『승려 기본교육기관』으로서 개교이래 60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교육부로 부터 '91년 3월 각종학교로 4년제 대학학력을 인정받았고, '96년 12월 11일 안암교정에서 정규대학으로 개편인가 받아 이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으로서, 제반정비와 학풍을 고양하고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정립을 위한 김포교정 신축이전과 함께, 명실상부한 『승가교육의 중심도량(道場)』이 될 것입니다.

모집요강 및 정원

불 교 학 과 (주간)	60명
사 회 복 지 학 과 (주간)	60명
계	120명

※ 제2지망을 할 수 있음.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특별전형
• **지원자격** :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로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 조계종단에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 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 입학정원의 40%내외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만으로 우선 선발함.
※ 스님들이 강원재학중 「수능시험」준비를 하며 「경학」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강원 대교과를 졸업한 스님들에게 전통승가교육 바탕위에 현대적인 승가교육과 학문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강원대교과 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타종단 승려도 종단 추천으로 응시, 정원의 5%내외로 입학 할 수 있음.

고교내신성적	교리 및 상식고사	면접고사	합 계
40%	40%	20%	100%
400점	400점	200점	1,000점

원서 교부 및 접수
• **전형방법** : 하기 전형방법으로 입학정원 60% 범위 내외로 선발 함.
■ 장 소 :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 '96. 12.16. (월) ~ '97. 1. 17. (금) 10:00~17:00 (단, 토요일 제외)
■ 접수기간 : '97. 1. 13. (월) ~ '97. 1. 17. (금) 10:00~17:00
※ 전화로 우편 교부신청하거나 접수기간내 우송접수 가능함.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내신성적표 (입학원서 중간 기록 난)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입학원서 뒷면 기록 난)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원본 및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원본은 대조 확인후 반환)
2)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3) 석차 연명부 사본 1부 (이상은 출신고교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함)
4) 승적 증명서 1부 (총무원 발급)
5) 최종 수계증 사본 1부
6) 특별전형 지원자 : 강원 대교과 (4년)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건강 진단서 1부 (대학 입시 또는 입사용 - 보건소 등 발급)
8)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은사, 사숙·형 등)
9) 호적 등본 1부
10) 주민등록 초본 1부
11) 칼라사진(오조가사 수한 반명함판 3x 4Cm) 4매 (원서부착 3매의 별도)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2) 전 형 료 : 55,000원
■ 전형일정 ※예비소집시 원서교부증과 승려증 필참
• 예비소집(특별·일반전형) - '97. 1. 21.(화) 09:00~09:40(음 12월13일)
• 불교교리 및 상식고사(일반전형) - '97. 1. 21.(화) 10:00~11:10

본교 특징 및 입학생·졸업생 특전
☞ '96년 12월 11일 정규대학으로 개편인가 되었으며, '97학년도 2,3학년 편입생은 아래사항중 5·6·8항의 학사학위 등 정규대학 혜택외에 가능함.
1. 본교는 종단에서 운영하는 「승려 기본교육기관」이므로, 본교 졸업자는 비구 및 비구니계와 법계 5급(정덕)을 품수 받는다.
2. 본교는 종단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므로 일반대학 반액정도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3.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공과목만 개설 운영하는 경영차원이거나 고답적인 대학이 아니며, 승려로서 기본적으로 수학해야 할 교과목을 빠짐없이 개설, 수학과 수행을 겸비하는 「종단인재 양성도량(道場)」이다.
4. 불교학과는 「불교·선·인도철학」의 중요과목을 체계적으로 개설, 불교학 관련 전반에 대한 이해로 수행과 연구기반을 잡게하고, 사회복지학과는 「수행교육과정(불교, 승려기본 학습과목)」을 배우며 사회복지학과목을 고루 수학,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구현하는 사회복지가가 되도록 한다.
5. '97신입생은 본교 졸업시 「문학사」의 학위를 받게된다.
('97편입생은 대학학력 인정만으로 각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가능)
6.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은 보건복지부의 「1급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 사회복지사업이 용이하다.
('97 편입생은 2급 취득)
7. 3~4학년중에 본교 부설 「보육교사 교육원」 1년간 수학하면, 보건 복지부의 「보육 교사 2급」 자격 을 취득, 어린이 집 개원 용이함.
8. 병역 연기혜택, 군법사 및 각군 학사장교 지원가능, 대학 예비군 부대편성(전역 5년차 이하 년중 1일의 기본교육만 부여, 5년차 이상 교육면제) ('97편입생은 대학원 진학자 군법사지원 가능)
9. 비구·비구니 수행관(기숙사)이 무료로 운영되며, 학인 편의를 위한 대형버스 운행.

2·3학년 편입생 모집요강
1) 모집내용 : 제2학년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00명
제3학년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사편입 0명
2) 지원자격
제2학년 : 대한불교 조계종 승납 2년('97.3) 이상 승려로서 대학 1년 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전문대 졸업자, 방송대·산업대(개방대) 1학년 이상 수료자) 모든 전공, 계열에서 지원 가능
제3학년(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97.3. 조계종의 승납 3년 이상 승려
3) 전형방법과 일정은 신입학 요강과 대동 소이함.
※ 지원 희망자는 본교 교학처에 문의 바람.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校
136-075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
☎ (02)925-5507~9, 926-4377, FAX(02)928-4302

법회 안내

미타사(02)662-4736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미륵기도 매월 8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철야정진 매주 토 저녁10시

만덕사(02)451-4597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호압사(02)803-4779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입제 오전10시30분
매월 3일(음) 회향 오전10시30분
약사재일 8일(음) 오전10시30분
인등법회 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18(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명덕사(062)365-0367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부녀부법회 매주 수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7시
거사부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자비사(051)505-0300

정기법회 매주 금 오후2시

내원정사(051)242-0691

약사재일 매월 8일(양)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1일(음)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현사(053)654-8533

경전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금요강좌 매주 금 오후7시
좌선정진법회 매주 토 오후7시
어린이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해인사지족암 철야법회
매월 넷째 토

지장암(042)221-6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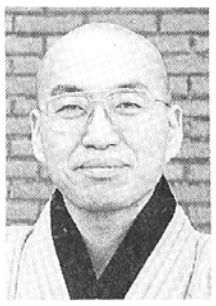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입제 오전11시
매월 3일(음) 회향 오전11시
문수보현기도
매월 4일(음) 오전11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입제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입제 오전11시
참길청년회법회 화 오후7시30분

구화사(053)323-4984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기초교리강좌
매월 1일(음) 오전11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초발심자경문 및 지장경강의
매월 18일(음) 오전11시
금강경강의
매월 24일(음)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집행위장 법 륜 스님



"우리 돈으로 3만원이면 북한주민 한 사람이 1년 먹을 식량을 살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을 돕는 일은 우리 힘을 벗어난 엄청난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모으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수준의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동포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법륜스님(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은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을 설명하고 불자들의 적극적인 자비행을 당부하는 말로 중책을 맡은 소감을 밝혔다.

법륜스님은 불교운동본부 창립의 실질적인 산파역을 맡았다. 몇차례 중국 연변을 방문하여 북한동포의 굶주리는 실상에 대한 생생한 소식과 압록강변에서 본 북한어린이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북한동포돕기를 발원했다. 이후 지난 8월부터 박광서교수(서강대, 우리는 선우 이사장) 김재일법사(동산반야회장) 김동흔 경불련운영위원장 등과 만나 창립을 추진해왔다.

"압록강변 북한어린이 보고 발원"

"아울러 같은 동포에게 사기를 당해 어려움에 처한 중국조선족동포 돕기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도, 불교인의 자비심에서도, 민족적 양심에서도 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멀지 않아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풀릴 것입니다.

정성운 기자

교 차 로

마약퇴치·환경기금 전달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은 지난 10일 총무원장실에서 (재)마약퇴치운동본부 민관식 이사장에게 성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스님은 이에앞서 6일 환경운동연합에 그린벨트와 반달곰살리기운동 기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보조사상연구회 총회 및 송년회



현호 보조사상연구회 이사장스님은 오는 28일 오후6시 법련사 불일문화회관에서 보조사상연구회 총회 및 송년모임을 개최한다.

'공해없는…' 발간 기념회

성타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 회장스님은 오는 21일 오후5시 송현클럽에서 〈공해없는 세상〉 지6호 발간기념회 및 연기영교수(동국대) 초청 '사찰환경권 보장과 불교계 과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청소년 밝은미래…' 참석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스님은 지난 14일 탑골공원에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96 청소년 밝은미래찾기 다짐대회에 참석했다.

미국 워싱톤 송년법회 참석

원해 조계종포교원 포교부장스님은 미국 워싱톤지역 송년법회에 참석, 법문을 하고 미주지역 해외포교 현황파악을 위해 지난 13일 출국했다.

교통안전협회서 법문

자우 금강사 주지는 지난 11일 도로교통안전협회 불자모임인 보리수회 창립 1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해 '생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설법 했다.



평통 공로 대통령 표창



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 의장스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서 평화통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하버드대로 해외연수



해주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6개월 일정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으로 해외연수차 지난 9일 출국했다.

'박물관 운영' 세미나 발표

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은 오는 19일 경기도박물관이 '박물관과 사회발전' 주제의 세미나에서 '문화인프라로서의 박물관운영'에 대해 발표한다.

'자랑스런 불자' 대상 수상





공종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사진위)과 가수 김흥국씨는 오는 23일 부산그랜드호텔에서 거행되는 '제4회 자랑스런 불자상' 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BBS합창단 지휘 맡아



장일남 한양대 음대교수는 지난 10일 불교방송 가등빈가 합창단의 음악감독(지휘자)으로 임명됐다. 부지휘자에는 연세대 음대 출신 김성범씨가 임명됐다.

우리는선우 송년법회

박광서 우리는 선우 이사장(서강대교수)은 20일 오후6시 30분 서울 신사동 음식점 '맥'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게시판

강연 환경강연회=선덕사(주지 행법스님)는 오는 18일 오전11시 3층 대법당에서 유정길국장(불교환경교육원)을 초청, '불교의 생명사상과 환경문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 (062)263-4660

모임 파라미타 부천지회=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성타스님)는 오는 22일 부천 석왕사 육화당에서 부천지회 창립법회를 갖는다. (032)663-7771

석불문화연 총회=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18일 오후6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총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박갑수씨(통일원)의 '북한이야기' 강연도 있다. (02)760-5138

순례 태국북부답사=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은 오는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6박7일의 일정으로 태국 북부지방 치앙마이 수코타이 피사놀룩 등 해외문화기행을 실시한다. 접수마감은 오는 30일까지 선착순 20명. (051)466-4080

알림 예식장=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폐백실 꽃터널식당 미용실 등을 갖춘 복지관내 예식장을 무료개방한다. (02)852-0525

공예작품=(사)대한장애인공예협회는 장애인들이 만든 수공 목공예품을 통신판매한다. (02)861-2716

화촉 본사 취재1부 김중근기자가 오는 29일 오후12시10분 서울 나윤예식장에서 신부 안희주양과 화촉을 밝힌다. (02)616-6137, 722-4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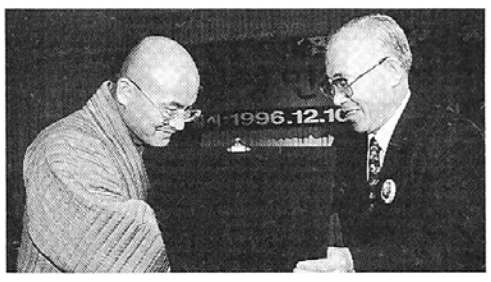
'96 대한민국 종교인 미술전 개막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우리나라 5대 종교 미술인 70여명이 참여한 '96 대한민국 종교인 미술전이 지난 10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막, 오는 19일까지 전시된다. 개막식에는 석주(조계종 원로의원) 성타(조계종 포교원장)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운덕(천태종 총무원장)스님 등과 이회창(신한국당 고문) 김영수 문체부장관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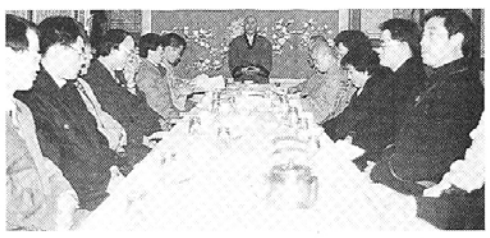
논산 호국연무사 중창불사 기공식

논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법사 경연수)는 지난 8일 중창불사 기공식을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 관촉사주지 백석, 마곡사주지 철응스님을 비롯 전북불교회관 어머니합창단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호국연무사는 총공사비 11억 중 4억여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삼천불조성 및 선서화전시회를 통해 불사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해인총림대책위 녹색시민상 수상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해인총림대책위원회(위원장 보광)가 지난 10일 서울 외환은행 본점 강당에서 열린 '96 환경인상 시상식과 회원의 밤' 행사에서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최열)이 제정한 제6회 녹색시민상을 수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시상식에서 "해인총림대책위는 불교계내 환경보존운동의 모범을 제시하고 사찰내 환경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광주사암련 14개 신행단체장 간담회

광주불교사암련(회장 상명스님)은 지난 2일 광주금수장호텔에서 교사불자회장 김진택 운전자불자회장 유기근 광주불교여성회장 박형정씨 등 14개 신행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지역불교신행단체들은 △지역불교 조직강화 및 불교행사 확대 △불교발전을 위한 재정지원확대 등을 결의했다.



해동용궁사 연화합창단 1돌기념 공연

해동 용궁사 연화합창단(단장 김치자)은 지난 10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창단 1주년 기념 발표회를 열었다.

4백여명의 청중들이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마련된 기념공연에서는 '꽃으로 앉으신 님' '찬미의 나라' '우리도 부처님같이' 등의 찬불가와 류화진씨의 무용 '자상', 김정애씨의 판소리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불교언론인의 밤 및 제1회 보도사진전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지난 9일 불교언론인의 밤 및 제1회 보도사진전을 동국대 학술회관 지하 그림에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타 동광 제원 도원 법현 영환스님을 비롯 송석구 동국대총장 송병욱 불교방송상무 한영애 함종한 박찬주 국회의원 홍사성 불교TV 제작국장 등이 참석했다.

석왕사 겨울불교학교

석왕사(주지 영담)는 오는 24일부터 취학반·초등학교 1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겨울방학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겨울불교학교
오는 24일~26일 석왕사
△겨울방학교실
오는 30일~97년 1월 24일
월~목 오전10시~12시
△어린이과학실험교실
오는 30일~97년 1월 24일
(032)663-7776

단합된 지도자의 힘 희망찬 어린이 불교

제22차 전국 어린이지도자 연수회

■ 기간 : 불기 2540년 12월 31일 오후 4시 ~ 익년 1월 2일
■ 장소 : 속리산 유스타운

모 시 면 서 …

반갑습니다.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며 어린이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숨은 원력자 여러분,
"변화된 사회에서 스스로 변화하는 전통만이 살아 숨쉴 수 있다."는 세계적인 석학 하버마스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항상함이 없는 세계속에서는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 포교의 연구 열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함께 결집하여 신나는 불교운동을 전개합니다.

참 가 안 내

1. 연수회 특징
▷2541년 어린이법회의 방향을 제시한다.
▷지도자의 결집을 도모한다(조별시상)
▷어린이 포교의 개선안을 종합, 범종단적 정책을 유도한다.
2. 준 비 물
▷세면도구, 필기구, 운동화 착용, 동참금 4만원
▷어린이포교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 준비
3. 접 수 : 당일접수(군인, 도서벽지 지도자 50% 본회지원)
4. 지 급 : 2박 6식과 간식, 연수교재, 어린이포교 10년사 책자
5. 연수장 가는길
▷대전 → 보은 → 속리산종점 → 유스타운(전화 : (0433)42-5211)
(시외버스 : 대전고속터미널 옆 동부시외정류장 20분 간격 배차, 1시간 40분 소요)
6. 기타문의 : 본회 사무국 전화 : (051)808-4569~70
※지역차편 문의
광주 - 덕명사 무등스님 (062)365-0367 부산 - 본회 사무국
경남 - 성주사 룸비니유치원(0551)81-2002
서울 경기 인천 - 선재마을 (02)433-1507

주요 연수 내용

구분	내 용	강 사
1	새로운 찬불가와 율동	최미선과 기획 숲
2	바람직한 어린이포교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
3	마음 찾는 길(선의 세계)	성본스님/동국대 교수
4	불교의 신앙체계와 수행지도	철오스님/본회회장
5	불교신앙의 바른 이해	장휘옥/전 동국대 교수
6	정토와 염불의 세계	심산스님/통도사 부산포교원
7	마당놀이(우수조 시상)	기획 천상천하
8	어린이법회 할말있다	지역별 토론
9	주제발표(우수조 시상)	조별대표
10	정보화시대 어린이포교	이상대/본회사무총장
11	우리가락에 춤을	우광희/교사극단 징검다리
12	새해를 열며(촛불발원)	기획 천상천하
13	수계	정관스님/본회 총재
14	사찰습의와 예절	도일스님/법주사 강주
15	구연동화의 이론과 실제	김순녀/색동어머니회 전회장
16	현대어린이의 관심과 방황	구성애/성교육센터 소장

■ 총재 정관 ■ 부총재 혜총 ■ 회장 철오 ■ 상임부회장 운성
■ 이사 영조, 덕진, 설봉, 해관, 심산, 무등, 지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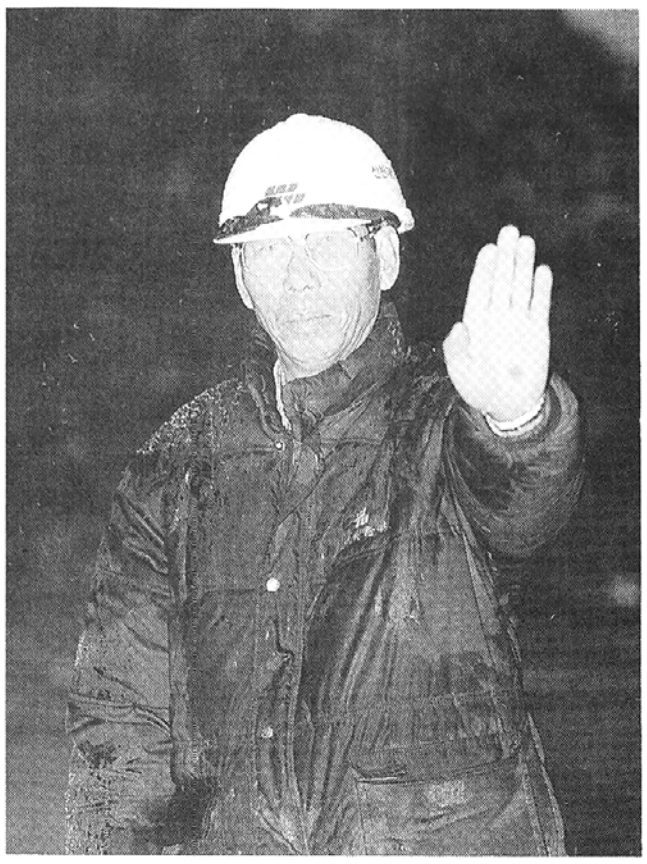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사단법인 불국토 대한불교어린이지도 연합회

※ 연수회 일정내 어린이포교를 위한 제1회 교재교구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관람바랍니다.

"온몸의 감각으로 타점찾기"

산문밖의 선禪

건물해체 전문가 양승인 씨



'부처를 구한다면 부처를 잃을 것이요, 도를 구하면 도를 잃고 조사를 구한다면 조사를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임제선사의 말로 선가에서 누누히 되새김질하는 공안이다.

부처와 조사라는 상(相)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 부처와 조사라는 상(相)조차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혹독한 자기수행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어쩌면 파괴와 재창조의 상관관계가 아닐까.

굵은 빗줄기가 허물어진 옛 조선총독부 건물의 잔재위에 지난날의 질곡을 씻어 내리기라도 하듯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재촉해 온 그. 임제선사의 가르침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파괴하고 거기서 또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혹독한 수련의 여정을 밟아왔으리라.

역사는 창조만으로 이뤄져 온 것은 아니다. 창조를 위한 파괴 역시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 왔다. 파괴는 범죄처럼 여겨지곤 하지만 역사는 파괴로 인해 재창조의 위대함을 역설하고 입증해 왔다. '파괴=재창조'. 이것은 35년간 점철돼 온 양반장의 삶의 공식이다.

21세때 홀홀단신 서울에 상경한 양반장은 이촌동 달동네 성냥갑만한 집에서 살다 이웃집 아저씨를 따라 건물해체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단층가옥에서 굴뚝, 고층빌딩까지 제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구조선총독부 건물 해체 총반장 양승인씨(58).

"정곡치면 한 방에 건물 무너져요"
소장직 마다하고 현장작업 자원

"부수는 일 35년…이제야 생사윤회 어렴풋이 짐작"

총독부건물 무너뜨릴때 '가슴 후련'
"망치인생 힘들지만 후회없어요"

지난 9월 조선총독부 맨 꼭대기 첨탑부터 건물해체를 시작한지 석달째인 11월 말. 마지막 남은 외벽. 한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타점을 찾아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위의 시선은 양반장에게 모아진다. 바로 그 '한 방'의 **타점**을 찾는 일은 양반장의 몫이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건축학을 전공한 석·박사들도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기계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의 '온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에 의해서만 이 가능한 일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해체 건물의 무게중심을 파악하고 다음 번의 타점과 붕괴 직전의 조짐을 감지해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제대로 조정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언제 콘크리트가 머리 위로 쏟아질지, 언제 건물과 함께 추락할지 모르는 일이라 항상 긴장해야만 하죠."

누가 뭐래도 '부수는 일'에 관한 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다. 현재상태를 과감히 파괴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가치창조를 추구해 온 그. 임제선사의 가르침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파괴하고 거기서 또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혹독한 수련의 여정을 밟아왔으리라.

역사는 창조만으로 이뤄져 온 것은 아니다. 창조를 위한 파괴 역시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 왔다. 파괴는 범죄처럼 여겨지곤 하지만 역사는 파괴로 인해 재창조의 위대함을 역설하고 입증해 왔다. '파괴=재창조'. 이것은 35년간 점철돼 온 양반장의 삶의 공식이다.

21세때 홀홀단신 서울에 상경한 양반장은 이촌동 달동네 성냥갑만한 집에서 살다 이웃집 아저씨를 따라 건물해체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단층가옥에서 굴뚝, 고층빌딩까지 제 소임을 다한 건물들을 해체하는 일만을 고집스레 해 왔다

"처음 해체해 본 것이 당시 광화문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2인1조로 20명이 한달가량 작업을 했습니다" 장비라고 해봐야 10kg짜리 대형망치와 정, 그리고 몸뚱아리가 전부였던 시절에 지금의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8층짜리 반도호텔까지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건물 해체를 해보았다고 회상하는 양반장. 그것은 일련의 고행이었으리라. 혹독한 수행을 거쳐야만 하는 납자의 고행이 해탈을 향해 있다면, 아무 말없이 손을 놀리며 자신을 해체 건물에 이입시켜야만 하는 일 또한 '파괴'의 관념을 벗어버린 '새로운 창조'를 향해있는 것이리라.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해체했을까. '5천평짜리 조선무역공사, 70m짜리 전주 전매청 굴뚝 3개, 궁정동 안가, 그리고…' 커다랗고 길쭉한 얼굴을 간신히 가리고 있는 안경 너머로 그 수를 헤아리던 양반장의 눈동자는 이미 수없이 겪은 생사의 고비를 더듬고 있었다. 몇년전인지 서울 시민회관 해체작업을 벌이다 4층에서 떨어져 저승문턱에까지 갔다가 되돌아 온 것하며 지붕해체작업을 벌이다 떨어진 것하며.

그러나 정작 양반장이 가장 힘겹게 여겨 온 것은 공사때마다 바로 그 '한 방'의 타점이 어디인가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밤이면 해체 건물을 머리에 떠올리고는 타점이 어디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날을 지샌 적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도 양반장은 자신의 일에 대해 100% 완벽하다고 장담하지 않는다.

"이제야 생사진리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건물의 윤회나 인간의 윤회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길을 갈 겁니다." 이 직업이 천직이라는 양반장.

"한 방으로 건물을 허문 순간은 오히려 허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즐거워집니다." 극도의 긴장감과 거기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동시에 즐기며 늘 새로이 자신의 삶을 창조한다는 양반장. 그는 이미 '파괴의 전문가'가 아닌 '삶의 창조자'였다.

10년을 넘게 해체반장만 해 온 그는 소속회사인 산천개발에서 소장직을 주겠다는데도 마다했다. 학력이 국졸이라는 열등의식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현장에서 자랐기에 끝까지 현장에서 뼈를 묻고 싶은 마음에서다.

지금까지 부순 그 어떤 건물도 총독부 건물만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숴 본적이 없다고 한다. "내 손으로 이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가슴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같은 아픔을 후손에게 남겨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양반장은 벌써 새로이 복원된 경복궁에 서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일제 잔재인 총독부 건물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의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회상에 감격해 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한명우 기자

경계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문 ①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계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방법은.

② 세속에 묻혀 온갖 욕구충족을 위해 헤매이게 되는데 마음자리를 올바로 다스리자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요?

③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 부처를 본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연기·사성제·삼법인 사법인 등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익명의 독자〉

답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이 같은 것이니 몰아서 말씀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일체의 경계, 그러니까 안팎의 경계가 실은 다 과거에 내가 마음으로 지어 입력해 놓은 것입니다.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지은 것이 때에따라 솔솔 풀려나오면서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언짢게 한 일을 왜 내가 지은 것이냐 하겠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너와 나는 들이 아닙니다. 근본에 있어서는 우주법계와도 다 한통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경계는 나를 진화로 이끄는 공부재료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내탓인줄 모르니까 남을 탓하고 심지어는 무슨 팔자 운명까지도 한탄을 합니다.

아무튼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이나 욕심 같은 것은 모두 다 전자에 내가 짓고 현실에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탓이란 말입니다.

일체 경계가 내탓인줄 안다면 원인을 찾아내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찬찬히 자신을 돌아보면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그 원인까지도 내속에서 나온 것이니 찾느라고 애쓸게 아니라 나온 자리에 그냥 놓고 가는게 바른 공부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독화살을 맞았는데 이 화살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쏘았고 어떤 독이 묻어있느냐를 따지다가 그만 죽고말테니 무엇보다도 먼저 쑥 잡아 빼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 원인 따질 것 없이 다 내 속에서 나온 것, 다 내탓이니라 하고서는 '그래 거기서 나온 것이니 거기다 놓는다' 하고는 여여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녹음테이프에 새 것을 다시 녹음하는 것처럼 됩니다. 나오는대로, 좋은 경계가 다가오면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 놓아버리고 나쁜 경계가 다가오면 마음으로 돌려서 잘되라하고 놓아버려야 합니다. 경계에 얽매여 붙들고 늘어지면 그 붙잡고 안타까와 하는 마음이 그대로 다시 짓는 마음이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락 놓고 지켜보는게 바르게 수행하는 길이고 자유를 맛보는 길입니다. 무조건 놓고 지켜보다보면 체험하는 때가 옵니다.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부처를 본다 한 것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체만유는 근본에 있어서는 공입니다. 그런데 무시이래로 한 생각 짓는 마음이 삼천대천세계 일체 만물만생을 형성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이 우주는 다 마음의 소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공이지요. 인연도리만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 나를 포함한 일체의 형상세계가 실은 다만 인연의 소산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평등이요 공 아닙니까? 그래서 평등공법이다 이말입니다.

이런 도리를 투철히 안다면 그대로 제법의 실상을 아는게 되고 제법의 실상을 알면 그대로 부처자리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들 부처라고 하면 그만 대상을 생각하게 되는데 부처가 있다고 하면 부처는 없는 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처가 없느냐하면 없다고도 맞지 않습니다.

〈금강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지요.

사성제는 아시다시피 고집멸도, 고의 원인과 고를 멸해 도에 이르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고란 무엇이겠습니까? 공한 것을 있다, 없다고 하니 고요 무상한 것을 늘 있다고 하니 고입니다. 모든 시작엔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고는 자동적으로 따라붙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연기일뿐인줄 안다면 고는 이미 고가 아닙니다. 내가 '삶은 고가 아니다'라고 자주 말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체는 내탓이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데 무슨 고니, 고가 아니니 하겠습니까.

삼법인이라는 것은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이고 거기에 일체개고를 보태면 사법인인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일체는 인연소산이니 '나'라고 할 실체가 없고 인연으로 생긴 것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고 이 공한 도리를 알면 그대로 열반적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성제니 삼법인이니 하는 것을 말로 알아들으려해서는 안됩니다.

불교는 실천으로 터득하는 것이고 직접 체험을 통해 맛을 보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다면 수행일 수가 없고 가르침을 따르는 것도 못됩니다.

이론으로 따지려하지 말고 가르침 한가지라도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을 하려고 노력해야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인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화엄학림 제3기 학인 모집 공고

실상사 화엄학림은 화엄경을 중심 경전으로 하여 강의 연구, 토론 위주로 공부하는 종단 교육법에 의거한 전문교육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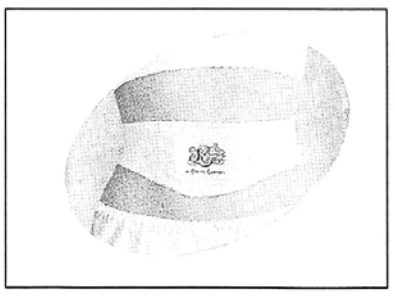
▶ 교 수 진 : 연관스님, 도형스님, 법성 스님, 일원 스님
▶ 교 과 목 : 화엄학 개론(일승집현문, 망진환원관, 의해백문, 화엄약책, 삼성원융관, 법계관문 등) 화엄현담, 화엄본경(80화엄), 화엄사상사, 특강
▶ 응시자격 : 비구로서,
1. 기본 교육기관 졸업자 및 예정자(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
2.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원서 교부 및 접수 : 1996년 12월 1일 ~ 1997년 2월 25일 (음력 10월 21일 ~1월 18일)
▶ 전형일정 : 1997년 3월 5일 (음력 1월 26일) 오후 1시 실상사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입 학 일 : 1997년 3월 23일 (음력 2월 15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증서 (예정) 1부
사진 5매(반명함판)
▶ 문 의 : 전화 0671)34-3860,3861(화엄학림)
0671)34-3031 (사무실)
0671)34-3757 (주지실)

※ 입학을 원하는 스님들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590-850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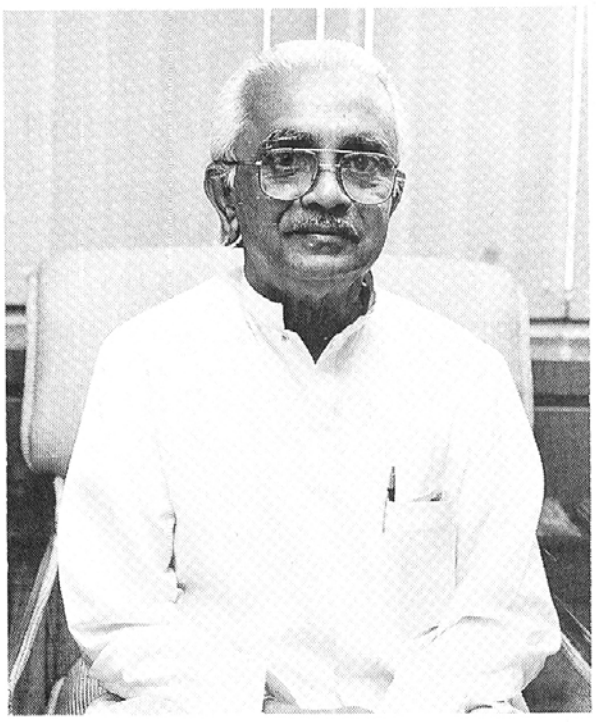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4〉

스리랑카 아리야라트네 박사

"사회개혁 원동력은 봉사정신"

"한손엔 과학과 기술 다른손엔 지혜 더 평화적인 지구공동체 건설해야죠"



"사회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정화해야 하며 우리가 필요한 정화의 과정은 사회에서 노동, 즉 사회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1958년부터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운동을 전개해 스리랑카 사회개혁을 이룩한 아리야라트네 박사는 '봉사'가 바로 사회개혁의 원동력이며 '자신의 깨달음을 연기한 보살행'이라고 주창했다. '사르보다야'(Sarvodaya)는 '모두의 자각'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슈라마다나'(Shramadana)란 '한 사람의 생각과 노력을 공유'한다는 의미. 아리야라트네 박사의 사르보다야 운동은 불교전통과 경전을 단지 영적인 가르침으로만 해석한 한계에서 벗어나 영적·도덕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많은 영역으로 확산시켜 20세기 불교사회개혁운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1950년대 스리랑카는 자본주의 경제논리를 따르는 다른 제3세계 국가들 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연했고 절대권력층과 도시빈민·농민 등의 소외층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또 학생들은 도시빈민과 농민의 현실에 대해 대부분이 무지의 상태에서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환원되고 있었다. 당시 스리랑카의 불교고등학교인 나란다 칼레지에 재직해 있던 아리야라트네 박사는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며 "영국의 식민지배로 붕괴된 불교윤리의 회복이야 말로 스리랑카의 재건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리야라트네 박사는 먼저 학생과 교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은 학생과 교원들을 가장 낙후된 농촌으로 휴가를 보내 농촌개발을 고민해보라는 과제를 부여한 '슈라마다나 집회'(Shramadana Camp). 아리야라트네 박사가 나란다의 학생과 교원들에게 처음으로 실시했던 의식개혁사업은 장차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운동의 초석을 이루었다. 한편 '슈라마다나 집회'는 학생과 교원들의 의식개혁 뿐만 아니라 농민들 사이에서 농촌사회를 자신의 손으로 개선하려는 동기도 유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리야라트네 박사가 전개한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 운동은 처음 10년간 오로지 '농촌' 봉사를 주요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경 부터는 이 운동을 위한 개발교육센터(method), 운동보급센터, 사르보다야 전국본부, 사르보다야 연구소 등이 설립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처럼 사르보다야 운동은 스리랑카의 대다수 소외계층이 참여한 운동이다. 또 사르보다야 운동은 1980년대에 이르러 네덜란드(NOVIB) 등을 비롯해 20개 유럽단체로부터 재정·기술 등을 지원받기 시작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르러 사르보다야 운동이 위협받게 되었다. 스리랑카는 '신하라'와 '티밀'이란 두 인종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 따라서 스리랑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하라와 소수민족인 티밀 간의 정치·경제·종교적 갈등이 빈번했다.

사르보다야 운동은 초기부터 신하라·타밀지역 등을 분할하지 않고 스리랑카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스리랑카 사회의 다문화적 특성에 따라 '전통적 가치'를 존중했다. 또 사르보다야 운동의 사상적 배경인 '불교윤리' 역시 신하라와 티밀을 분리하는 관념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흰두교인 타밀인이 사르보다야의 지도자로 성장했고 타밀의 젊은이를 위해 슈라마다나 집회와 여러 종류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직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첨예화된 스리랑카의 인종갈등으로 아리야라트네 박사는 결국 평화중재인의 역할을 요구받기 시작했다. 1983년 '7월 반란'이 발발한 이후 아리야라트네 박사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리랑카의 다수의 인종이 참가하는 평화회의와 평화행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또 "스리랑카의 영적·정신적·사회적·지적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라는 '국가평화와 조화를 위한 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아리야라트네 박사는 1990년에 이르러 캔디에서 스리파다까지의 평화행진을 성공시킨 것을 비롯해 크고 작은 평화행진을 조직해 나아갔다. 아리야라트네 박사는 평화행진에 참여자들에게 "부처님이 인간의 평화를 위한 45년간 행진을 행하셨다"며 '평화행진'의 당위성을 천명하고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드디어 1994년에 이르러 아리야라트네 박사는 타밀단체(LTTE)의 지도자를 만나 스리랑카의 인종갈등에 대한 극적인 협상을 이루었다.

1994년 아리야라트네 박사가 국제연합에 제출한 '인간개발보고서'에는 사르보다야 운동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이 보고서에서 아리야라트네 박사는 "개발운동은 인간을 개발의 중심에 놓고 경제적 성장은 목표가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의존하는 자연적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가 바라는 개발운동의 전형이다"라고 지적해 사르보다야 운동이 불교의 '자비'와 환경보호론 등과 깊은 사상적 교류가 있음을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사르보다야 운동을 스리랑카 개혁운동에서 세계 개혁운동으로 확대했다.

현재 스리랑카 2만여 마을중 절반이 넘고 1만1천여 마을에서 스님과 교사 자원봉사자들이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1992년 '니와노 평화상' 수상한 아리야라트네 박사는 수상소감에서 "이제 한 손의 과학과 기술, 다른 손의 영적 지혜가 더 숭고하고 더 공정하고 더 평화적인 지구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지국적인 차원에서 통합되어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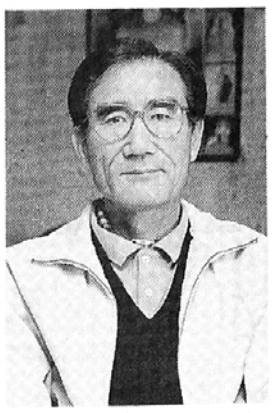
약력

- 1931 스리랑카 남부 우나와트나에서 출생
- 1956 스리랑카 콜롬보 나란다 카레지(불교종립학교) 교사
- 1965 스리랑카 간티시에서 열린 교원조합에서 사르보다야운동 소개
- 1969 '라몬 막사이사이상' 수상
- 1982 벨지움 왕실재단의 '국제개발상' 수상
- 1990 코펜하겐의 '오거스트 포레르 기념상' 수상, 인도 자므나라트 버지지 재단의 '국제상' 수상
- 1996 '간디평화상' 수상

58년 '모두 깨닫기운동' 전개…80년 이후 국제적 관심 인종갈등 해소위해 평화행진 주도 해결책 협상

나의 수행일기

석우일 〈신라역사과학관장〉



"3년작업 석굴암모형 완성 감격"

상원사 범종·황룡사 9층탑 신비풀이 열중

1974년 경주 토함산의 석굴암 부처님은 유리벽에 갇혀 버렸다. 관광객을 비롯한 인재(人災)로부터의 보호가 그 이유였다. 그해 나는 일본 바이어 몇 사람을 데리고 석굴암으로 갔었다. 당시 목각불상을 일본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일과 관련해 나를 찾아온 일본인들에게 우리의 석굴암부처님을 자랑하고 싶었다. 그런데 유리벽에 갇힌 부처님을 보여드리는데 그쳐야 했다. 나는 매우 속이 상했다.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는 바이어들에게 석굴암 부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이 속상한 것은 아니었다. 유리벽으로 인해 부처님의 체취와 오늘의 중생이 단절의 상봉을 해야 하는 것이 속상했다.

그 유리벽은 부처님을 보호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로인해 석굴암 부처님은 역사 속으로 불현듯 떠나버렸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을 했다. '유리벽 속의 부처님을 불러내자. 역사 밖으로, 오늘의 우리 곁으로 불러내는 일을 해보자'는 결심을.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것이 석굴암의 모형을 만드는 일이었다. 모형을 만들어 여러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석굴암을 관찰할 수 있게 함으로 그 신비의 성보를 이해 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득했다. 나는 이 일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 나와 해야 할 분명한 과제라고 믿었다.

85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진철문선생(동국대 강사)과 석굴암에 대한 자료수집에 나서 1백여건을 모았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자료실 연구원으로 있던 강순형 선생과 동국대 박물관의 이기선선생이 자료 분석을 맡아 주었다. 진철문 선생은 석굴암 10분의 1 축소모형 도면을 만들었다. 막상 일이 시작되고 나니 어디서 인지 모를 힘과 운이 따르는 것 같았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은 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 원로학자들을 찾아 다니며 격려와 도움을 많이 받았다.

3년이 지나고 나서 석굴암의 10분의 1 모형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목조로 만들 생각도 했지만 역시 석질의 질감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석굴암의 재료 공급처로 알려진 암벽에서 화강암을 채취해 가루를 내고 여기에 남산의 수정옥석과 에폭시를 배합해 석굴암과 근사한 질감의 석분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흙으로 2백86개의 부품을 암수 두가지씩 조각해 석고로 뜨고 이를 이용해 실리콘으로 금형을 만들고 이에 석분재질을 부어 모조품을 완성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그 일이 완성된 다음의 감격은 눈물로도 다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었다.

88년은 참으로 기쁜 해였다. 석굴암 모형이 완성되고 신라역사과학관이 세워졌던 것이다. 그해 10월 '석굴암 모형전'을 '석굴암 무엇이 문제인가. 모형으로 재조명한다'는 주제로 가졌다.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생각하면 힘이 솟는다. 그후 신라역사과학관에 석굴암에 관한 자료와 모형들을 가득채울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이었을까? 나의 힘은 아니었다. 전생부터 쌓아온 내업의 힘이거나 토함산 석굴암의 불보살님들의 힘이었을 것이다.



20여년이 넘는 세월을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석굴암에 대한 집착을 보였던 것이지만 나는 집착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나는 석굴암을 화두로 수행해 왔고 그 정진은 어느정도 익어 남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첨성대의 과학적 분석을 지나 오대산 상원사 범종 연구로 화두를 바꿔 들었다. 황룡사9층탑의 신비를 밝히고자하는 화두풀이도 조금씩 준비되고 있다.

나는 스님들께 "옛날 신라에서 석굴암을 조성하는 불사에 동참했던 것이 분명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정말이길 바란다. 그래서 금생에서 이런 일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다음 생에 성불은 아니더라도 스님몸을 받는 인연의 씨앗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보는 것이다.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2박3일 정토수련회

1997년 새해를 맞이하여 수행과 포교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수련 프로그램과 수련교재를 준비하고 아래와 같이 "2박3일 정토수련회"를 실시하오니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 수련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 일요일 오후 2시
- 제1차 : 97년 1월 3일 ~ 1월 5일 (2박3일)
- 제2차 : 97년 1월10일 ~ 1월 12일 (접수마감)
- 제3차 : 97년 1월17일 ~ 1월 19일 (2박3일)
- 제4차 : 97년 1월24일 ~ 1월 26일 (2박3일)
- 제5차 : 97년 1월31일 ~ 2월 2일 (2박3일)

▶ 수련내용 : 정토수행법, 염불명상법, 자비관, 관정기도, 만트라명상, 무드라작법, 선체조, 사경의식, 육근참회, 탑쌓기, 연꽃만들기, 향공(香功), 백만편염불, 티벳불교(슬라이드)

▶ 수련지도 : 현장스님

▶ 참가대상 : 중고등부 및 어린이법회 지도자, 교사불자, 포교사, 불교신행단체 임원 정토신앙을 지도하고자 하는 불자

▶ 인 원 : 각30명 (선착순)

▶ 회 비 : 3만원(교제포함)

▶ 교 통 편 : 광주고속터미널에서 117번, 217번 시내버스타고 (사평종점) 하차 대원사까지 택시
(혹은 군내버스 : 하루 4회 운행)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①주소 ②성명 ③생년월일 ④성별 ⑤직업 ⑥전화 ⑦불교신행경력 ⑧참가하고자 하는 소견과 일시(0차)를 적어 우편 및 팩스·전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전화 : (0694) 52-1755 · 53-1755
팩스 : (0694) 53-0009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 주지 석 현 장 합장

제4회 재가자를 위한

동계 위빠사나 명상수련원 개설

보덕사에서는 위빠사나 명상수련원을 개설합니다.
뜻 있으신 분은 다만 몇일이라도 동참하여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내〉

■ 기간 : 97년1월 15일 - 97년 1월 30일 (15일간)
■ 장소 : 대한불교 조계종 보덕사 (강원도 영월군·읍)
※ 교통편
서울 - 영월 3시간 소요
기차 청량리 - 영월 3시간 소요
영월터미날 - 보덕사 택시 기본료

● 준 비 물 : 세면도구, 모포
● 동 참 금 : 1일 1만원
● 지도법사 : 보덕사 주지 현오스님 (미얀마 72일 저자)
● 주의사항 : 단체 이틀전 신청 시간 엄수, 오후불식, 묵언
● 문 의 처 : ☎(0373)374-3169

시간표

4시	예 불
6시	아침공양
8시	경 행
9시	좌 선
10시	사시불공
11시 30분	점심공양
1시	경 행
2시	좌 선
3시	경 행
4시~5시	좌 선
6시	저녁예불
7시	경 행
8시	좌 선
9시	취 침

대한불교조계종 **보덕사**



백제금동불 광배(光背) 백제실에 전시된 7세기 초 불상 광배(光背). 95년 부여 무소산에서 출토 첫 공개됐다. 삼국시대의 금동불 광배로는 유일한 유물이다. 백제의 정교한 세공술이 단연 백미다.



불교조각실 전시 유물들은 시대별·양식별로 전시돼 유물감상의 기능과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있다. 대형불상이 전시된 큰 전시실(사진) 과 금동불 등이 전시된 작은 전시실로 구분돼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관람객 발길잡는 '불심예심'

불교유물 시대·양식별 전시 이해도와
백제 금동불 광배등 1300여점 첫 공개

12일 신축 개관 국립중앙박물관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로 지난 6월부터 휴관에 들어갔던 국립중앙박물관이 경복궁내에 신축박물관을 마련, 12일 개관식을 갖고 일반에게 공개됐다.

2003년 용산에 국립박물관이 완공될 때까지 사용될 새 박물관은 연면적 5천5백50여평, 전시면적 2천2백여평, 지상2층 지하1층으로 불교조각실, 선사, 원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실 등 18개의 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등 20개의 전시실에 모두 4천4백25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중 1천3백여점이 새로이 선보였다.

모두 69점의 불교유물이 전시된 불교조각실은 금동·청동·석조불상 등 규모가 큰 불상 16점이 전시된 큰 전시실과 금동불 등 53점이 전시된 작은 전시실로 구성됐다.

이들 유물중 그동안 부여박물관에서 전시됐던 '동양예술의 정수'로 꼽히는 금동미륵반가사유상(국보 83호)이 5년만에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관심을 끌었다.

불교조각실 바로 옆 금속공예실도 2백여점의 불교유물을 전시하며 찬란한 불교문화를 선보였다. 이곳에는 청동 천흥사 명범종(銘梵鍾·국보 280호)등 범종 11점과, 고려시대 금동석장머리 등 불교의식구 3점, 사리장엄구, 청동탑, 불경함, 호신불상 등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 있다.

또 백제실의 백제 금동불 광배(光背)는 이번에 처음 전시된 유물로 백제예술의 정수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불교조각실은 이전의 전시형태를 벗어나 시대별, 양식별(석가여래상, 아미타여래상, 약사여래상 등)로 유물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예술품 감상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 전시실 바로 앞 터치 스크린(Touch Screen)을 설치해 불교조각의 흐름과 금동불 제작법 등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이수성 국무총리, 김영수 문화체육부 장관,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 임창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각계인사와 관람객 3백여명이 참석했다.

한명우 기자

단신

경주남산 세계유산신청

경주 남산이 내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될 전망이다.

'97문화유산의 해' 집행위원회(위원장 한병삼)는 지난 9일 신라의 보고(寶庫)이자 수많은 불교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경주 남산을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병삼 위원장은 "남산은 전체가 불교유적으로 뒤덮여 있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문화유적지니만큼 지정을 신청할 경우 등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천관사 복원 지표조사

통일신라시대 화엄종의 첫 개창지로 전통 법맥을 이어오고 있는 전남 장흥 천관사의 옛 가람지를 찾기 위한 정밀 지표조사가 실시된다.

장흥군은 지난 11월말 순천대 박물관에 용역을 의뢰, 이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97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어사 범종 원형보존

지난해 11월 포항시 남구 오어지에서 발견돼 오어사에서 보관중이던 고려범종이 지난 4일 경주문화재연구소로 옮겨져 부식방지를 위한 원형보존작업에 들어갔다.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범종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수 및 원형보존을 위한 작업을 실시 영구보존을 위한 코팅처리를 마친 뒤 다시 오어사에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미국종교학회

교수등 8천여 회원 연구교류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에서 학회(學會)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며 홍보되고 있을까? 미국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 이하 'AAR')는 인터넷에서 가능한 학회 활동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이트이다.

사회·정치·경제와 개인·단체 등과 관련해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두고있는 AAR은 미국의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와 교사들이 만든 단체로 현재 1천5백여개 학교의 약 8천여명이 AAR 정식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AAR은 이들 회원의 연구활동을 위해 '게시판' '전자회의' '전자우편' '전자학회지' '관련 D/B 연동' 등의 메뉴를 개설해 놓고있다. '게시판'과 '전자우편'은 AAR 활동을 홍보하고 회원의 연구성과를 교류하기 위해 사용된다.

'전자회의'는 각 회원의 연구성과 중에서 두드러진 주제에 대해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용된다.

또한 AAR이 제공하고 있는 '전자학회지' '관련 D/B 연동' 등의 서비스는 회원의 연구활동을 돕기도 하지만, AAR을 방문한 네티즌이 종교학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메뉴.

'전자학회지'는 글렌 E. 요름 교수(위티어大, 美)가 주관하고 있는 '전자학회지'에는 불교를 포함해 미국인의 종교적 관심사를 주로 반영하고 있다.

'관련 D/B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聖미카엘대학·신학교 연합회·미국신학도서관 등과 같은 미국의 주요 종교단체를 방문할 수 있다.

미국종교학회 주소는 'http://scholar.cc.emory.edu/scripts/ AAR/'이다.

오종욱 기자

성보전시관 내년초 착공

해인사등 8곳 설계마쳐

해인사를 비롯한 8개 사찰의 성보전시관 건립 공사가 내년 초부터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용주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사찰은 설계와 공사 승인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며, 내부문제로 전시관 건립계획에 다소 차질을 빚었던 용주사도 올해 안으로 설계작업을 마무리 짓는 등 예정대로 건립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성보전시관 건립대상 사찰들은 설계와 시공승인은 나왔으나 동절기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빠르면 내년 2월중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흥사는 일단 오는 18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키로 했으나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동학사

길상암

山堂靜夜坐無言
(산당정야좌무언)
寂寂寥寥本自然
(적적요요본자연)
何事西風動林野
(하사서풍동임야)
一聲寒雁唳長天
(일성한안려장천)

虛空可量風可繫
(허공가량풍가계)
無能說盡佛功德
(무능설진불공덕)

고요한 밤 산당에 묵묵히 앉았으니

적요로움 가득 본연의 세계인데
무슨 일로 서풍은 건듯 불어 숲을 흔들며
장천에 기러기 끼룩끼룩 이 무슨 소식인가.

허공도 가히 잴 수 있고 바람도 잡아맬 수 있으나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네.

참선삼매·초탈의 세계 노래

해설 길상암의 이 주련은 깨달음의 순간을 알리는 호탕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요한 밤 산당에 묵묵히 앉으니'는 참선삼매의 경지다. 그 경지에서 본연의 세계를 적요히 비추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주 법계의 실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와중에 서풍이 불어 숲을 흔들고 기러기의 끼룩끼룩 소리가 들린다. 선에 몰입한 무아의 세계가 비실재의 세계라면 숲과 기러기소리는 실재의 세계다. 초탈지경에서 문득 현상계의 일이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 그 현상계의 일이란 하나의 소식이다. '그것은 무슨 소식인가'라고 묻는데에 이 시의 묘미가 있다.

필자는 선의 세계를 모르거니와 감상자의 입장에서 생각컨데 그 소식은 적요로 가득한 非실재가 바람에 숲 흔들리고 기러기소리 나는 실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련의 서체는 경봉스님의 솜씨라고 전해진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한국 사찰의 주련이 이번 회로 끝맺습니다. 그동안 애독해 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삼성·삼무성'은 중도사상의 재천명

묘주스님 '해심밀경' 연구분석 발표

지난 6일 동국대에서 열린 인도철학회 '제7회 정기발표회'에서 묘주스님(동국대 강사)은 논문 '해심밀경의 삼성(三性) 삼무성관(三無性觀)'을 통해 삼성은 각각 자기 동일성을 띤 개별적 존재형태가 아닌 우리들의 관련방식에 따라 나타난 세가지 존재형태로 일체법이 삼성·삼무성의 이치를 갖추면서 동시에 일체법에 삼성·삼무성이 포섭된다고 주장했다.

묘주스님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허망된 분별에 의해 실체로 착각하고 집착하는 것) 의타기성(依他起性·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속성을 지닌 법의 양상) 원성실성(圓成實性·원만히 성취되어 있는 참다운 성품의 법의 양상)의 삼성의 관계에서 의타기상과 변계소집상은 서로 연(緣)이 되어 생사에 끊임없이 이어지며, 의타기상은 현상계의 모든 법(유위법)을 총칭한 것이고 원성실상은 그 본체인 진여이므로 이 둘의 관계는 불일불이(不一不異)하다고 설명했다.

또 삼무성인 상무성(相無性) 생무성(生無性) 승의무성(勝義無性)은 각각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 원성실성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일반에게는 삼성과 삼무성이 대응관계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부정되는 것은 변계소집성뿐이며, 이는 법부들의 의타기상과 원성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을 더할까 염려돼 삼무성을 내세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생활속의 불교 ⑩②

보물 창고에 들어갔다가 빈 손으로 나올수야…

법요식 때마다 우리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때 쓰는 말이 '지심귀명례' 또는 '지심정례'이다. 말 뜻은 '나의 신명을 던져 부처님의 교령(敎令)에 돌아가 의탁한다'는 것이다. 마음으로 부처님께 의지하는 게 귀명(歸命)이고 몸으로 부처님 전에 엎드리는 게 정례(頂禮)이다. 거기엔 귀의한다는 뜻의 나무(南無), '나'를 버리고 던진다는 뜻의 도아(度我), 조건없이 믿고 따른다는 뜻의 신순(信順)이 포함된다.

그러니 지심귀명례 할 때의 그 마음 그 뜻은 예사롭지 않다. 적어도 목숨을 버릴 각오로 믿고 따름을 말한다. 사무치고 거듭 사무치는 마음, 목숨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들겠다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 불보살을 만나게 되는 인연이 얼마나 희유한 일인지, 불가에서는 이를 눈 먼 거북이가 나무 판대기를 만나는 격에 비유한다. 바다에 한 눈 먼 거북이가 살고 있는데 이 거북이가 1백년에 한번씩 물위로 떠올라 숨을 들이 쉰다. 그때 망망대해를 떠돌던 널판지의 옹이구멍으로 거북이가 고개를 내미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확률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 그렇게 어렵사리 사람의 몸을 받았고 다시 불보살을 만났으니 어찌 그 기회를 이 목숨 때문에 놓치고 말랴. 그래서 지심귀명례 - 목숨을 던지는 각오로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일체 행의 으뜸이며 만공덕의 어머니라고 한다. 굳은 신심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 같아서 어떤 마장도, 어떤 병고액난도 덤벼들지 못한다고 한다. 믿음은 또 번뇌를 끊고 육근을 청정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깨달음을 실어나른다고 한다. 말하자면 믿음은 인간이 좋아하는 여러 보화 중에서도 제일 가는 보화인 셈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세가지 복을 원한다. 건강, 안온, 장수이다. 따라서 이 세가지를 방해하는 적 - 늙음, 질병, 사망을 두려워한다. 12인연경에 보면 이 세가지 적을 피하는 길은 불·법·승 삼보에 귀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바로 지심귀명례이다. 그러나 입으로만 '지심귀명례' 한다면 수만번, 아니 평생을 외어도 그것은 다만 입 운동일 뿐이다.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격이다.

지심귀명례는 깊은 믿음이 전제될 때 공덕이 있다. 진리를 믿고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믿고, 법을 따름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고, 승이 늘 바르게 자리이타함을 굳게 믿을 때 비로소 공덕이 있는 법이다.

그렇지 않고 믿음이 약하거나, 다만 의례적일 때는 '지심귀명례'가 거꾸로 법을 업수이 여기고 자신을 비하하는 꼴이 된다. 맹구우목(盲龜偶木)에 비유할만큼 인간의 몸 받기가 어렵다했는데 그 어려운 기회에 불법을 만나고도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니 결국 자신을 업신여기는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법을 비하하는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사람은 모처럼 보물창고에 들어갔다가 빈 손으로 나오는 사람과 다르지 않으니 참으로 못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믿음이란 지극한 마음(지심至心), 깊은마음(심심深心), 견고한 마음 (견심堅心) 곧은 마음(직심直心),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바탕이 된다. 삼보를 향한 지심귀명례가 그런 마음으로 사무칠때 비로소 우리는 법요식 때마다, 지심귀명례를 할때마다 무량공덕을 쌓게되는 것이다.

보물창고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야 어찌 진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하랴.

협찬 : 윤 명 기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㉕

他老人家也一樣大悲心切
타노인가아일양대비심절
恐怕我們 發不起長遠心
공파아문 발불기장원절심
故發這麼重誓來向我們保證
고발저마중서래향아문보증

저 노장이 한결같이 자비심이 간절하여
우리들이 장원하고 절실한 마음을 내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여
저토록 지중한 다짐을 하고 있으니 우리들을 향한 보증인 것이다.

用功人有兩種難易 一初用心的難易二
용공인유양종난이 일초용심적난이이
老用心的難易
노용심적난이
(一)初用心的通病 就是妄想習氣放不
초용심적통병 취시망상습기방불
下來
하래

無明 貢高 嫉妬 障碍 貪瞋癡愛懶做
무명 공고 질투 장애 탐진치애뢰주
好喫
호끽
是非人我 酒滿一大肚皮 那能與道相應
시비인아 창만일대두피 나능여도상응

일장대병 변규고련천

대체로 귀엽게 자란 경우에는 습기를 잊지 못하여
사소한 정신적인 굴욕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가벼운 육체적 고통도 견뎌내지 못하니
어떻게 공부하여 도를 이루겠는가.
그대들은 석가모니부처님이 어떤 신분에서 출가하셨는지 상상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이는 몇가지 문자를 알아가지고는 (옛 선사들의) 글귀나 뒤적이며 고인의 말 마디로 알음알이를 지어서는
도리어 스스로 공부를 마친듯이 큰 아만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 바탕 큰 병을 만나면 괴로운 비명이 하늘에 닿는다.

或臨月三十到來 便手忙脚亂
혹람월삼십도래 변수망각란
生平知解 一點用不着 才悔之不及
생평지해 일점용불착 재회지불급

그러다가 (인생의) 섣달 그믐날이 되어서야 문득 허둥지둥하게 되지만
평생의 알음알이는 한 점도 써먹을데가 없게되니 그제야 후회한들 이미 미치치 못하게 된다.

"공부 마친듯 아만 일으키면 큰병만나 알음알이 쓰지도 못하고 후회하게 된다"

공부하는 이에겐 두가지 어려움과 쉬움이 있다. 하나는 초심자의 난이요 둘은 오랜 이의 난이이다.
(一)처음 공부할때의 병통은 망상과 습기가 농아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과 자존심 질투 장애 탐진치 애착 미움 등을 짓고 즐겨 받아먹고
옳으니 그르니, 너니 내니하며 뱃가죽만 늘리면서 어떻게 도에 상응할 수 있겠는가.

或有些是箇公子哥兒出身 習氣不忘
혹유사시개공자가아출신 습기불망
一些委屈也受不得 半點苦頭也喫不得
일사위굴야수부득 반점고두야끽부득
那能用功辦道
나능용공판도
他沒有想想本師釋迦牟尼佛 是箇甚麼
타몰유상상본사석가모니불 시개심마
人出家的
인출가적
或有些識得幾箇文字 便尋章摘句
혹유사식득기개문자 변심장적구
將古人的言句作解會
장고인적언구작해회
還自以爲了不起 生大我慢遇着
환자이위료불기 생대아만우착
一場大病 便叫苦連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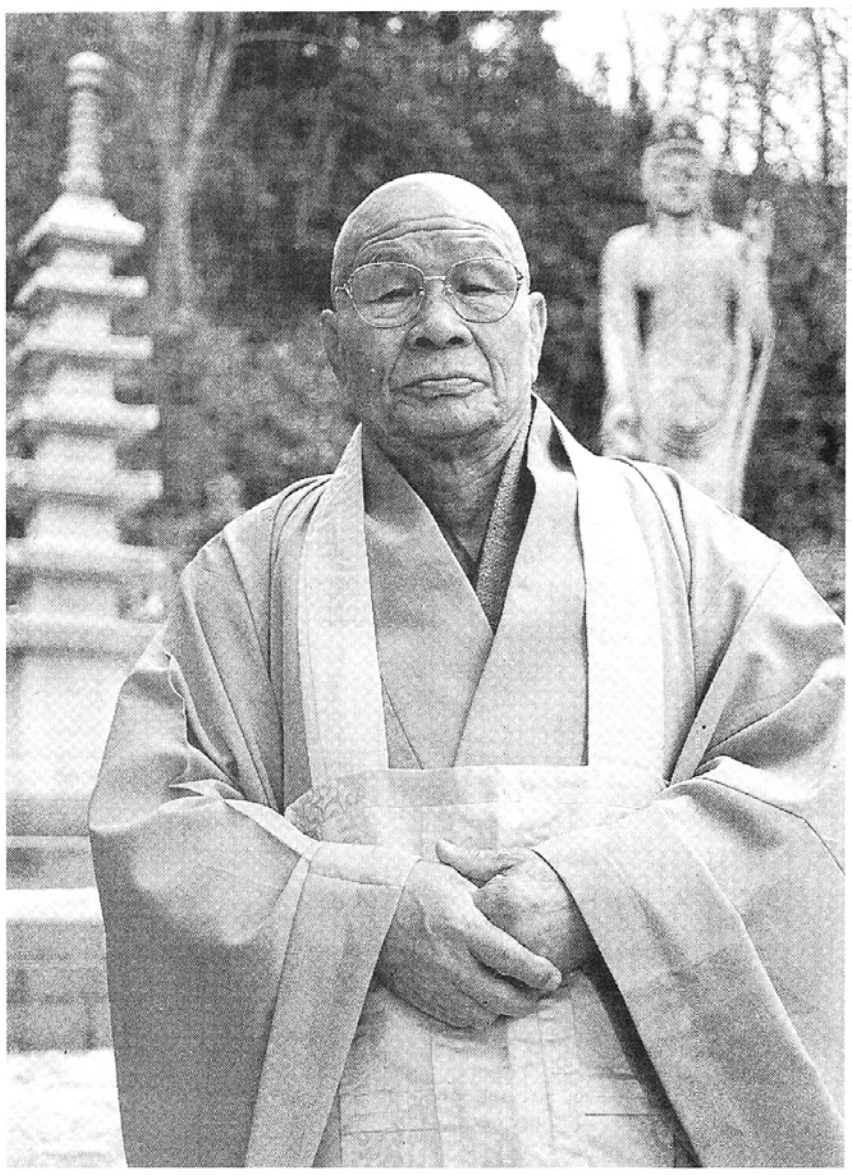
有點道心的人 又摸不着一箇下手處
유점도심적인 우모불착일개하수처
或有害怕妄想 除又除不了 終日煩煩
혹유해파망상 제우제불료 종일번번
惱惱
뇌뇌
自怨業障深重 因此退失道心
자원업장심중 인차퇴실도심
或有要和妄想斷命 憤憤然提拳裁氣
혹유요화망상반명 분분연제권고기
挺胸睜眼像煞有介事
정흉정안상살유개사

약간의 도심이 있는 이는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찾지못한다.
혹은 망상을 두려워해 없애고 또 없애려하나 끊이지 않아 종일토록 번뇌에 시달리고
스스로를 원망해 업장만 무겁게 하니 그로인해 도심은 스러지고 만다.
어떤 이들은 망상과 더불어 목숨까지 내버릴 듯이 씨근대며 주먹을 불끈쥐고 기를 돋우며
가슴을 내밀고 눈을 부릅떠 무슨 일을 낼것같이 살기를 보인다.

龍眼

★ 지상법석

"피안으로 가는 뱃길



야옹스님 〈승용사 주지〉

약력
- 1917년 경북 선산 生
- 7세때 사불산 대승로 출가
- 백용성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 대승사 강원서 이력마치고 예천 용문사등서 강백
- 42년 일본 유학, 임제대와 용곡대 졸업
- 총화종 8, 11대 종정
- 저서 〈일여의 경지〉 〈금강경오가해역강〉등

불불도중생(佛不度衆生)
중생각자도(衆生各自度)
불약도중생(佛若度衆生)
중생하유랑(衆生何流浪)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각자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일뿐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중생이 유랑하는가.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그런 믿음을 갖는게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의 본래의미를 잘 모른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여러분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극락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면 부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용하는 것이지 불교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께 복을 주고 극락을 주고 평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앞에 소개한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시

"제불보살은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중생들은
대상으로서 섬기고
형상에 넋을 잃는
오류를 쉽게 범해요"

는 것이라면 지금처럼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달픈 인간의 삶은 없어야 합니다. 대자대비의 부처님께서 그런 환난을 나몰라라 하고 계실리가 만무한 것 아닙니까. 그 한량없는 대비심으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고통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세상은 싸움과 병마와 질병이 끌이 없습니다. 이 끌없는 환난속을 사는 중생이 바로 유랑의 중생입니다. 왜 유랑을 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구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겁의 윤회 속에서 스스로 중생고(苦)를 벗으려는 발원을 하지 않았고 성불의 공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보로 현생의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악습을 못버려 현생의 환난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현생에서 마저 노력하지 않고 선근공덕을 외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무량한 법을 만났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인연을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인연을 만났을 동안 스스로를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한다는 것은 다름아닌 해탈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계를 더이상 유랑하지 않고 절대자유의, 절대진리의 세상에서 절대자유와 절대진리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를 구제하는 길이냐. 그 방법을 일러 주신 것이 바로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중생계의 유랑하는 몸을 벗으시고 절대자유와 진리의 몸이 되셨고 그 자리에서 일체중생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일체중생이 불성을 완숙시켜 해탈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이신 것이 정각 이후 설법으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현세행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스스로 갖추고 있는 법신을 보지 못하고 중생의 소견과 중생의 눈과 중생의 입맛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다생의 여러 중생들이 각자의 근기에 따라 성불의 길을 헤아려 걸을 수 있도록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말씀으로 성불의 방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나 참선수행 염불수행을 하는 것이나 다 성불로 이르는 길을 스스로 헤아려 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자신을 구제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방편은 수없이 제시되어 있으되 중생이 그 방편을 믿지 않거나 못본 채 하거나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방편에 의지하려는 습이 익고 익어서 그 방편에 끄달려 다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방편에 끄달려 본업(스스로를 구제하는 것)을 망치는 것은 차라리 그 방편의 행적을 모르는 것보다 못한 일입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방편에 끄달려 버리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염불을 열심히 하면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다고 합시다.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잘된 믿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시(是)와 비(非)는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에서 부처님이 누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2월 28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기	불교학특강	불교복지론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상담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지상법석

노젓는 사공은 자기자신”

‘부처님이 소원 들어주신다’ 잘못된 믿음
부처님은 ‘성불의 길’을 일러주셨죠

구나에 달려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얻어 일체중생이 불성을 잘 갖추고 있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 불성이 소원을 들어 준다고 믿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이나 여러 보살들이 소원을 들어 주신다고 믿으면 틀린 것입니다. 제불보살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어디 다른 곳에 대상으로 존재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형상에 넋을 잃고 대상으로서의 부처님께 자신을 맡기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교는 자각의 가르침이고 자각의 완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입니다. 그 길은 자기 스스로 갈 뿐입니다. 자기의 인연에 따라 스스로 가는 그 길의 끝에서 대열반을 얻으면 그 법신으로서 여러 중생에게도 성불의 아름다운 인연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자력회향(自力廻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팔정도나 육바라밀 등의 도를 잘 닦고 그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닦는다는 대목에 주의해야 합니다. 남의 등을 긁으면 내가 시원해 지지 않는 것처럼 나의 불성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그 닦음의 공덕을 이웃에 회향함으로 아직 닦지 못한 중생에게 사표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치면서 중생계가 더 빨리 극락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빌더라도 대상의 부처를 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갖춰진 여래의 성품, 바로 자신의 불성에 의지해 소망을 빌고 성취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기가 낮은 까닭에 불상이나 보살상을 보고 예불하고 기도하지만 실상 그 형상이 곧 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경전들을 보면 대개가 ‘이 경전의 이름만 한번 들어도 무량의 복을 얻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경전의 내용을 잘 간파하여 자신의 불성을 밝히라고 강조한 것이지 그 이름에 끄달리거나 둔자나 의미에 집착하라는 의미는 추호도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강을 건너는 배와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이라는 배는 강을 건너면 버리는 것이지 강을 건너서도 떠메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수행이 다 강을 건너는 배입니다. 오직 강을 건너는 일이 중요할뿐 배의 생김새나 크기 같은 것에 집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어떤 강을 건너고 있습니까. 배는 잘 나갑니까. 더러 노나 삿대가 부러지거나 썩지 않는지 배 밑창이 새지나 않는지 잘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 배를 젓는 사공은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노를 잘 젓는 방법과 노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일러 주시고 저 건너에 피안의 언덕이 있음을 일러주신 스승입니다. 스승의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피안의 언덕을 보고 일심으로 노를 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말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복을 준다는 다소 과격스러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구제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모두가 자신을 구제하는 방편이니 따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저 실천수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바로 사는 것만도 자기를 구제하는 큰 방편입니다. 하물며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 수행하여 마음을 닦는 것은 얼마나 큰 방편이겠습니까. 그 방편에 끄달리지 말고 부지런히 닦아 나가면 스스로 성불의 길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8정도가 있잖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바른 실천 여덟가지가 팔정도 입니다. 그걸 잘 지키는 삶이 이미 스스로를 유랑의 중생계에서 제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잘들 아시는 말로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이다’라 했습니다. 참선수행으로 부처님의 마음 곧 불성을 꿰뚫어 보고 교학참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마하는 것은 하나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에는 문자도 여의고 희두도 여의고 적정열반의 대도를 증득하려면 이런 수행방편이 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을 하는 사람이 교를 돌라서도 안되고 교를 하는 사람이 선을 무시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불교의 특징이자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게송으로 소개할까요.

삼처전심시선지(三處傳心示禪旨)
일대소설개교학(一代所說開敎學)
선시불심교시어(禪是佛心敎是語)
이어취심대법도(離語取心大法道)

나는 중생을 제도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고 중생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에게 있어 우주법계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크신 스승이십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일체중생의 이고득락 해탈성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끄달려 스스로 혼미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밝혀 보이신 길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해탈성불의 대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굳은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일러주는 진리의 소식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자기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못믿는 사람이라면 경전을 봐도 경이 아닌 문자를 탐닉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참선을 한다해도 공안이 없는 앉은뱅이 흉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선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구제하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정진하는 사람은 속이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 곧 부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일체중생이 다 부처인데 어찌 부처를 속이고 부처가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여러 가르침의 방편을 따라 자기를 구제하기 위해 매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은 부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신은 구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구제해 주지 못하는 자기 한몸을 스스로 속이는데 어찌 구제의 인연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원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량할 수 없는 윤회의 고통 속에서 중생의 몸을 벗고 절대 자유 절대 진리의 몸을 얻기위한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연을 지어야 하고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제불보살의 위신력에 의지하는 것은 방편이지 목적일 수 없습니다. 방편을 방편으로 잘 다스리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원을 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그 지혜는 스스로 갖춰지는 것입니다. 굳은 신심을 흐트리지 말고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진의 열매는 반드시 열립니다. 아주 실하게 열려서 온 중생계에 그 복락을 회향할 것입니다.

그 실한 열매가 맺히는 소식을 우리는 이렇게 듣습니다.

가무저선(駕無低船)
취무공저(吹無孔笛)
묘음동지(妙音動地)
법해만천(法海漫天)

바닥없는 배를 저어 가고
구멍없는 젓대를 부니
묘한 음악소리 천지를 흔들어
법의 바다 하늘에 가득하도다.

닦음공덕 이웃에 회향할때 온세상 극락정토
“누가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남 속이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 속이는 것은 부처님을 속이는 것
수행함에 가장 큰 적은 속이는 마음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97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34

“가자 더높이 영원한 깨달음의 길로”
진리의 세계 이르는 실천적 주문

경전은 설하기를 반야바라밀다는 크게 신비한 주문으로서 일체의 고(苦)를 제거하며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고 한 후 바로 주문을 설하여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라고 가르친다. 주문의 뜻은 ‘가자 가자 더 높이가자 영원한 깨달음의 길로’이다. 경전은 색즉시공으로부터 시작하여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를 설한 후 그 진리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영원한 깨달음의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심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로 떠나는 첫 걸음이라는 뜻이다.

현대물리학에서 기술하는 물리적 상태와 사람의 심리상태는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다. 물리적 상태를 현대물리학에서는 상태함수로 표현하는데 이 상태함수는 갖가지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술한다. 이미 설명한대로 이 가능성중에서 어느 한가지만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상태를 골라서 보았기 때문이다. 쉬뢰딩거의 고양이에서 설명한대로 관찰하기 전까지 고양이의 상태는 삶과 죽음이 섞여 있는 것으로 기술된다. 살아있는 고양이를 본다는 것은 삶을 창조해서 보았기 때문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사람의 마음도 물리적 상태와 닮았다.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뒤섞여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부처를 생각하고 불도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마를 생각하고 마사(魔事)를 지을 수도 있다. 불도 마도 다 마음을 쓰기에 달린 것이다. 마음은 물질과 달라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어 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물질을 다듬어 모양을 만들듯이 마음을 다듬어 길들일 수가 있다. 마음을 길들이는 좋은 방법이 마음에다 말로써 암시(暗示)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염불독경을 하며 반야심경에서는 신비한 주문 ‘아제아제 … 사바하’를 즉 ‘… 저 영원한 깨달음에의 길로’라는 말을 불자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다. 염불이나 주문을 염하는 것은 다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도 버리고 조사도 버리고 일체의 것에 매달리지 않는 무애를 얘기한다. 일체의 계율마저 사람의 마음을 묶어두는 장애로 취급하여 계율마저 뛰어넘는 무애자재행을 얘기한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야 한다. 삶도 죽음도 옳고 그른 것도 뛰어넘는 ‘공’에 이른 마음이라면 거기에 무슨 부처라거나 마라거나 하는 구별이 있겠는가. 그 마음에 무슨 계율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무애자재한 마음에 이른 다음에라야 부처를 버리고 계율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무애자재한 마음에 이르기 전 즉 ‘조견오온 개공’을 하기 전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율도 지켜야 한다. 반야심경의 가치는 바로 주문을 설한데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공’이고 근심 걱정도 다 집착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헛것일지라도 거기에 매달려 울고 웃는 범부에게 깨달음을 설해봤자 그것을 얻을 방법이 없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길에 이르기 위해 믿음과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이 가리키는 것이다. 헛된 믿음이 안되도록 경전은 먼저 이치를 설하고 그 이치를 체득하기 위해 마음 속에 먼저 ‘… 영원한 깨달음의 길’이 있음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함을 설한 것이다.

물리적 상태는 관찰을 행하기 전까지는 무엇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번 말했다. 그러나 한번 무엇인가가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결정된 것만 나타난다. 마음도 그렇다. 한번 결정되면 그길로 움직인다. 이렇게 결정된 마음이 바로 업식이다. 우리에겐 두터운 업식이 있어 진리를 가리우고 있다. 깨달음이란 바로 이 업식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헛된 믿음’이요 집착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경전은 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헛된 꿈에서 깨는 방법이 신비한 주문 ‘… 영원한 깨달음의 길’에 있음을 설한 것이다. 물론 신비한 주문도 새로운 업식을 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은 후에나 벗어날 것이지 범부에겐 꼭 필요한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 · 물리학과〉

백의 관세음보살님 목걸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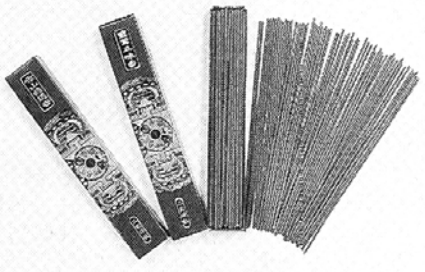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블루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영구보존이 가능한 99% 순은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진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을 뜻합니다.

목에 건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장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02)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二軾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크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요!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치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뇌내모르핀의 분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화방지는 물론 현대인의 잠다한 병(30~50대 여성의 火병, 불안, 신경질, 불면증, 피부병, 직장인 · 수험생건강 등)을 예방 치유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편협한 과학자의 판단능력을 넘어선 참선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한국일보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신문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8.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96.2.17)

108염주(小) ₩320,000 목걸이₩150,000
단주(大27알) ₩250,000 단주(고무줄)₩70,000
명상응氣(기) 방석₩120,000 반지 ₩45,000
▣ 계좌번호 : 중소기업은행
001-051259-02-015 예금주 조영옥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불교달력

아직 달력을 맞추지 않으셨다면
불교달력 전문 인쇄공장으로
직접 주문 하십시오.
마음에 와 닿는
달력을 만나실것입니다.

연락주시면 견품 및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오장동 69-2
강진 정판사

전 화 : 02)269-9755
FAX : 02)268-2391

고은 불교대하소설

내려다 보아라 저 아래



합두는 내려다 보고 있었고 불이는 올려다 보고 있었다.

욕계 제2천 도리천의 하늘 궁전 마당은 마치 그 눈부신 꽃밭 사이로 난 커다란 길까지도 두둥실 떠있는 것 같았다. 더구나 그런 길에는 오래 구름 한 자락이 그 연보라빛으로 물들어 그 구름에서도 은은히 향기가 나고 있었다.

온갖 사바세계의 괴로움과 아픔 슬픔이 다 사라진 듯한 그런 천상이었다.

그곳에 사는 천인들은 누구나 한 마디씩 주고 받는 말도 노래이고 그런 말이 아니더라도 어디선가 지극히 아름다운 연주의 소리가 노을처럼 물들어 들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합두와 불이가 주고받는 말도 노래일 수밖에 없다.

이런 곳에서 태어나는 목숨은 어머니의 자궁을 빌릴 까닭도 없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자라나다가 나와 응애응애 하고 첫 울음소리를 낼 까닭도 없었다.

그래서일까. 그런 울음소리 없이 태어난 하늘의 아기는 도리천의 1세가 사바세계 인간계의 6세이다.

그런 아기는 첫 울음소리 따위도 없이 태어나서인지 그 아기의 말은 어떤 슬픔도 깃들이지 않은 그런 영롱한 노래로 되는지 모른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문득 거기 앉아있는 것처럼 눈깜짝할 사이에 태어나는 것이 도리천에서의 탄생인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합두와 불이는 벌써 젊은 하늘의 남신 여신은 구름자락을 이끌고 이따금 만나는 것이었다.

이따금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남몰래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만남도 아니었다. 어쩌면 그런 만남은 거의 우연처럼 거기에는 어떤 의도나 작위가 끼어들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이 만나는 곳도 지정된 곳이 아니라 아무런 곳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그들이 만나는 곳조차도 만나는 때와 똑같이 거의 어떤 의지의 표면적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다.

아무튼 만남이란 어느 세계에서나 행복한 것이었다. 그 행복은 두 하늘사람에게 한동안 궁금한 나머지 묻는 첫 인사도 필요하지 않았다.

"안녕."

"안녕."

따위도 없이 그저 빙그레 웃으면 그 웃음과 함께 입이 열려 말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었다.

"오늘은 그대가 위를 보고 내가 아래를 보기로 합시다."

"그런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그대가 저 아래의 세상을 보고 내가 그대가 우러러 보았던 위쪽 세상을 보게 되겠지요."

"아 그것 참 좋은 일이오."

이런 정도의 부처이나 심심한듯한 동화(童話)와 같은 대화 몇마디로도 그들의 마음은 무한한 기쁨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정녕 그렇겠다. 도리천의 그 승화된 상태의 욕계에서 이미 색계와 무색계의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동안 떠돌며 태어났던 윤회의 되풀이와는 다른 그런 세계의 천진난만한 성정(性情)으로 되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위쪽 아마천 쪽을 바라보는 불이와는 달리 합두의 눈은 섬부주의 인간계를 투시하고 있었다. 33천은 무엇인가.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어떤 장애물도 되지 못하는 하나의 텅빈 허공계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그 허공계야말로 합두의 그 아름다운 눈동자 속의 무서운 시력이 관통함으로써 그녀가 온갖 모험과 정신 그리고 희로애락을 겪었던 인간세상의 여기저기를 냉연히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천상의 한 군데에서 내려다보는 인간세상의 지상은 그것대로 아름다움이었다. 아무리 아귀 축생과 함께 이루어진 인간세상이지만, 아니 아귀 축생뿐 아니라 그 자신이 때로는 아수라이고 때로는 지옥을 품고 있었던 인간세상임에 틀림없지만 그곳에 바짝 다가들어 살피는 것과 달리 아스라이 드높은 천상 허공에서 내려보는 것 자체가 이미 그곳의 상세한 현실을 추상화하기 마련이다.

천상에서 내려다보는 인간세상은 추상화처럼 아름다웠다 합두는 돈황 사막 무욕도를 떠올렸다



합두는 그녀의 의식 밑바닥에서 무엇인가가 꾸물거리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막고굴의 그 어둑어둑한 굴실(窟室)이 떠올랐다. 그 전생에의 확연한 기억이 아니더라도 긴가민가 하는 대상인 것과는 달리 바로 그 어둑어둑한 작은 암굴 속의 우렁우렁 울리던 메아리 같은 것이 천상에서의 귀언저리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심코 "돈황!" "돈황 막고굴!"이라는 말이 새어나오면서 그 전생의 도량이 차츰 그 그림자나 그늘 따위로부터 숨겨져 있던 실체가 잃어서는 것이었다.

아니 이보다 먼저 끝도 없이 뻗어 나가고 있는 사막이 떠올라 그녀의 귀 언저리에 사막의 거센 바람소리가 스쳐가고 있었다.

그런 소리 뒤에야 그녀의 눈에 사바세계 섬부주 인간계의 한 군데인 중국 오지가 솔개의 눈에 지상의 한 벙어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내려다 보이는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합두는 그곳에서 한두번 들은 일이 있는 시 한 편도 떠올랐다. 이른바 서역시편(西域詩篇)이었다.

> 평생 노래하고 춤추는 곳
> 더욱 노래를 익힘으로 말미암지 않네
> 비파의 아름다운 소리 끊어지고
> 거문고 줄 끊어져 이어지지 않네
> (平生歌舞處
> 無由更習曲
> 琵琶絶巧聲
> 琴絃斷不續)

아마도 그 시는 더 이어졌던 모양이나 여기까지만 외울 수 있었다.

합두와 불이는 보라빛 구름위서 부여안았다 "나는 불이님의 세세생생 동행…"

돈황 막고굴은 아닐지라도 그 일대의 어느 불교국가의 왕립사찰에서 노닐던 풍류의 승니(僧尼)를 개탄하는 주제였던 것이다.

"예잇 하잘 것 없는 일이야" 라고 합두는 그 시를 얼른 지워버렸다.

그 뒤에 이어서 귓전을 예워싸는 소리가 있었다. 파도소리였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이전의 오랜 세월 그대로 들리던 파도소리였다.

"아아."

그 파도소리는 조선반도 서해안의 연안에 있던 무욕도의 파도소리 그것이었다. 그 파도소리로 합두의 눈에는 하나의 섬이 떠오르고 있었다.

무욕도였다.

무욕도의 선착장 쪽이 훨씬 깊은 것인지 그 일대가 유난히 검푸른 물빛을 띠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도 한 겨를이었고 그 섬은 육지의 여러 곡선으로부터 어느만치 떨어져 있는 외딴 섬들레를 하얀 이빨들 같은 파도로 에워싸여 있었던 것이다.

합두가 몸을 움직일줄 모르고 그런 지상을 마치 발 아래를 굽어보는 것처럼 오래동안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그녀의 옆에 와 있는 불이가 슬쩍 건드렸다.

"이제 내가 내려다 볼 차례입니다."

"아아."

그때에야 꿈결에서 깨어난듯한 합두가 지상의 먼 곳까지 닿아있던 눈을 물려 바로 그녀 옆에 있는 불이를 바라보았다.

그때 합두는 그녀 앞에 서있는 하늘의 남신(男神)이 아주 오랫동안 그녀와 함께 윤회를 거듭해온 동행의 도반임을 놀라면서 깨달았다.

"아아 불이님!"

몇번이나 거듭 다른 삶으로 태어났으나 바로 그 불이가 무욕도 시절부터의 동료였던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나머지 합두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멀고 먼 세상을… 멀고 먼 저 아래의 세상을 내려다 보시더니… 그 세상의 중생들을 위하여 눈물바람을 하시는구료" 라고 불이가 조심스러운 위로의 말을 덧붙였다.

그녀는 고개를 한번 저었다.

"아닙니다. 불이님… 그대와 함께 지내던 전전생(前前生)의 곳을 생각한 나머지…."

불이는 아직 합두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제 내가 아래를 내려다보겠습니다."

합두가 일어서서 저만치 옮겨갔다. 그녀의 한마디 말이 남겨졌다.

"그대 공부하던 곳을 한번 찾아보시오."

불이는 바야흐로 일고 있는 환구름 한 자락을 걷어낸 다음 그 검은 허공계의 여러 방향으로 눈길을 옮겨가며 내려다 보고 있었다.

도리천의 하늘에서는 그런 검은 허공계의 어디연가 있을법한 세상이 아무에게나 쉽게 보이지 않았다. 불이의 경우에는 마치 점점 장님이 되어가는 약한 시력으로 보이는 풍경처럼 야릇한 추상일 뿐 인간세상의 어느 곳도 볼 수 없었다.

더구나 그 허공계에 사왕천 일대가 온통 구름으로 뒤덮여 있음으로써 도리천은 도리천 밖의 어느 세계도 상상할 수 없었다.

불이가 합두 쪽으로 갔다.

"이제 위쪽을 우러러 보구려" 라는 말에도 합두는 입을 다물고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있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더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불이님이 내 앞에 계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지없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기쁩니다. 합두님."

그들은 보라빛 구름 위에서 둘이 부여안았다. 그것은 남신과 여신 사이의 욕정 따위가 아니었다.

합두가 그녀의 밝은 영식(靈識)을 통해서 알게 된 무욕도 이래의 오랜 동료인 불이에 대한 새삼스러운 감격 때문에 합두의 수행이 이룩한 일치의 행위였던 것이다.

"불이님은 내 세세생생의 반려이고 나는 불이님의 세세생생을 따라다닌 동행이었습니다."

"……."

"이런 일이야 그대도 이미 짐작하셨겠지요?"

불이는 합두의 팔 안에서 풀려난 뒤 얼떨떨한 표정이 되었다.

합두가 구름덩어리를 한 아름 그런 불이한테 들씌 던져주며 이제까지의 진지한 것을 어린 아이들의 장난으로 돌렸다.

"이런 하늘나라에서는 실컷 소꿉장난이나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공부나 하는 것이지요."

불이의 생각은 좀 달랐다.

"아닙니다. 나는 이곳에서 한번 더 다시 태어나 욕계 제3천 야마천(夜摩天)의 하늘에 올라가 태어나고자 합니다. 그대가 내 동행이라면 거기까지도 함께…."

그림 · 조향숙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항,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주 大明堂 (상회터) 急賣
위치 : 충북 단양 적성면 [illegible] 최요지(임야512평)
※테크C에서 15분 관광지정지, 버스진입가(학궁터 행국)
■가격: 평당 5만원(더는 해로, 값은 공동묘지가격)
■기타: 동남탁, 남한강,
도담삼봉이 아래 펼쳐져있는 경치 최고지
연락처 : (0343)71-7242(산주)
※부동산 절대 사절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방제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단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단집, 법상등회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단집회 등
구로동 원흥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전 : 불단, 운각, 경탁회
방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단집, 천불회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중국명문 한의대
침·기공 연수
1. 박사과정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침·기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
기 간 : 8박9일
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비만, 좌골신경통, 기공등
연 수 후 : 국립남경중의학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
인 원 : 10명이내 선착순
2. 국제 침구사 연수반
대 상 : 침구전과정에 관심이 있는 분
기 간 : 1개월
연수내용
(1)중의학 기초이론 - 음양오행, 기혈진액, 변증논치등
(2)침구학 기초이론 - 경락, 유혈등 침구기본조작가능, 임상적다발병 침구치료법등
연 수 후 : 국제침구사 연수 수료증 수여
인 원 : 10명이내 선착순
출 발 : 1996년 12월 22일
3. 중국남경중의학대학 남경 025-6612904
4. 문의처 : 한국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1080, 511-2026-8
문의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 · 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척추교정 · 지압시술 및 개인지도
좌골신경통
TEL : 543-7306, 711-4370
전문시술원 張三洙

늙지않는 피부관리(남 · 여)
기미 · 여드름 · 검버섯 · 늘어진얼굴
불로장생부관리회원모집
압구정점 3443-0996 강남전철역점 563-5791

지리산 청학사
산사 수려한 곳에 방학때 조용한 공부방이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 숙식제공, 1인1실, 기름보일러
세탁기 완비 - 월 22만원
연락처 : 0595)83-2933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옥석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주(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대
• 마산(신광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단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시공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株)J 합장

포교원 운영하실 분
추석하시던 스님이 항상생의 이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 : 동대문구 장안4동
평당 : 50평 (시설 일체완비)
비용 : 보증금 3000만원
시설월세 180만원 · 월세 40만원
연락처 : (02)245-0904
※ 운영 주시 법회 가능합니다.

포교당 하실분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파라미타 지도자 지침서」 발간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가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 지침서를 시리즈로 발간한다.

파라미타는 지난 9일 회의를 갖고 오는 1월 개최되는 분회장 연수회까지 총 3권의 파라미타 지도자 지침서를 발간, 배포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파라미타지도자 지침서 발간계획에 따르면 1권 파라미타 규약집(창립취지및 배경, 이념, 강령, 회가) 2권 신입회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불교상식, 불자예절, 부처님의 생애, 신행활동) 3권 프로그램(법회, 수련, 민속, 야영활동)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교생활화 주춧돌은 여성불자"

이창숙씨 '불교의 여성 역할' 논문발표

"기복탈피 남녀평등·정체성 확립돼야"



오늘날 여성 불자들의 삶에서 불교가 사회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가 지난 20일 동국대 개교 90주년 기념관에서 마련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창숙 동국대 강사는 '불교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교육적 기능'이란 제하의 논문을 통해 여성불자들의 신앙형태와 입지강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강사는 부처님이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듯이 한국불교도 전래초기부터 여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신라시대는 여성이 주축이 되어 불교를 수용했고 불교를 생활화했던 고려 여성불교의 활동은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강사는 최근들어 비구니스님들의 경우 수행에 진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포교당, 유치원 운영, 사회복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재가여성도 사찰외호의 주역으로 간경, 참선, 염불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여성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기복적인 신행생활에 머물고 있으며 여성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으로 변성남자성불설(變成男子成佛說·여자는 남자의 몸으로 변해야 성불할 수 있다)과 같은 것이 불교여성관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여성불자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강사는 사회적인 여성의 지위는 향상됐지만 여성불자들의 활동은 미약하다며 시대의 추이에 맞는 종교로서 사회적 기능을 다하려면 남녀평등관에 입각한 불교관 정립과 그에 맞는 신행생활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교단내에 여성의 입지를 확보하고 사회적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여성불자의 정체성 확립 △불교에 대한 올바른 믿음 △교단의 남녀평등관 수립 △기복신앙을 탈피할 수 있는 교육체계 정립 △여성불자들의 발언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여성불자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바른 신행생활을 할 때 한국불교에 있어 여성의 사회적 기능을 더욱 강화될 뿐 아니라 여성불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



◇활동도 편하고 맵시를 살린 생활법복이 불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있다.

생활법복

편하고 맵시있고 모양새 다양

불자멋내기 '안성맞춤'

감·황토·참숯 물들인 천연섬유 사용

한복입기운동 확산따라 실용복으로 인기

생활법복의 인기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교TV 육법공양회와 자원봉사단이 개최한 생활법복 바자회 등을 계기로 생활법복을 애용하는 불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생활법복 전문업체인 길상우리옷(대표 김윤자)을 비롯 전국의 각 승복점에는 천연섬유로 디자인한 다양한 생활법복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생활법복의 특징은 개량한복의 형태에서 벗어나 저고리, 바지, 블라우스 등을 현대감각에 맞도록 세련되고 착용하기 쉽게 디자인됐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갑 황토 참숯을 이용해 물들인 생활법복의 인기가 높게 일고 있다. 이 법복은 천연의 색상이 그대로 표현돼 미적감각을 더해줄뿐 아니라 감촉이 부드러워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도 생활법복은 일반옷을 겹들어 입을 수 있고 세련된 옷 매무새 연출을 위해 실용적으로 달아놓은 단추 등 세심한 곳까지 색상과 모양새를 배려해 제작됐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털실로 만든 목도리, 모자, 장갑, 그리고 가방과 신발 등의 소품도 곁들여진다면 불자들 멋내기에 안성맞춤이다.

여성불자들이 주고객이었던 생활법복은 점차 거사들의 신행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남성불자들의 고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승복점들의 공통된 얘기다. 더구나 최근 정부차원으로 한복입운동도 전개되고 있어 더욱 활기를 띨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활법복의 가격은 약 10만원에서 40만원의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불자들이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생활법복이 보다더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 개발과 유통업의 단일화가 선행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중근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누비匠 보유자 김 해 자 씨

"마삼근 화두로 땀땀이 누비죠"



"세밀하고 견고한 전통 손누비옷은 세계적 하이패션입니다."

지난 10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로 새로 지정된 바느질 기법인 누비장(匠)의 보유자(인간문화재)로 인정된 김해자씨(45·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105).

김씨는 백여년전 재봉틀이 들어오면서 명맥이 끊어지다시피 했던 전통한복인 손누비옷을 재현 인간문화재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그가 누비옷의 최고장으로 우뚝서기까지에는 30년간 오롯이 외길을 걸어온것 외에 참선수행이 뒷받침됐다. 16년전 마음을 잡지못하고 방황하던 시절, 그는 백련암으로 성철스님을 찾았다. 3천배의 관문을 통과한 그에게 스님은 하필 '마삼근(麻三斤)'이라는 화두를 내렸다. 이후 그의 화두는 바느질 땀땀이 실려 옷감사이를 누비게 된다. 그의 침선화두쌍수(針線話頭雙修)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불명이 수산화(水山華)인 그는 경봉스님을 측근에서 1년간 시봉한 적도 있을 정도로 불연이 깊다.

"어머니의 체온이 스며있는 손누비옷의 포근함은 재봉틀로 누빈 기계누비옷과 비할 바가 아니죠." 손누비옷은 공기의 흐름이 천과 바느질땀사이를 순환하면서 날씨와 체온의 변화에 따라 따뜻하게도 하고 시원하게도 해준다는 김씨는 손누비옷에는 민족의 정서가 담겨있다고 말한다.

대구=이윤호 기자

만화 法句經 법구경

* 바라문의 장 *
모든 것을
통달하고
성취한 사람



이 향 원



시 · 공 · 사 · 의 · 불 · 교 · 책 · 들

책 안의 불교 책 밖의 불교

마흔 권의 책과 나눈 진지한 대화



시 한 편을 외워 봅니다.
소설 한 권을 읽었습니다.
밑줄 그으며 학술서를 공부합니다.
어디에서나 불교가 느껴집니다.
책을 덮고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 봅니다.
불교는 그곳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책 안에도 책 밖에도 있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책 안의 불교 책 밖의 불교』는 숨어 있는 좋은 책 마흔 권에 대한 서평입니다



지은이 김호성

시공사 전화 588-0833 팩스 588-0835

불교 길라잡이
곽철환 지음 / 값 18,000원
미라래빠의 十萬頌
가르마 첸치창이 옮긴 영역본을 이정섭 풀어 옮김 / 값 18,000원
부처님의 아흔아홉 가지 말씀
이형기 지음 / 값 5,000원
알게 모르고 모르게 알고
원의범 지음 / 값 6,000원
禪으로의 초대
스즈키 순류 지음 / 최세만 옮김 / 값 5,000원

시공 불교 총서
1 고타마 붓다의 생애
E H 브루스터 편저 / 박태섭 옮김
2 붓다의 옛길
피아닷시 지음 / 한경수 옮김
3 경전의 성립과 전개
미즈노 고겐 지음 / 이미령 옮김
4 불교 철학사
D J 칼루파하나 지음 / 김종욱 옮김
5 불교 심리학
루네 E A 요한슨 지음 / 박태섭 옮김
6 유식입문
다카사키 지키도 지음 / 이지수 옮김(근간)

시공 불교 총서는 지혜의 길을 일깨우는 풍경 소리입니다

도 서 명	저 · 역자	출판사	추천한 곳
코끼리의 눈물 재미있는 벽화이야기 만화 화엄경	고우익 권영한 임기준 · 조성연	밀 알 천원문화사 불교만화사	파라미타청소년 협 회
평화로움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고승열전	탁낙한 김현준 윤청광	장 경 각 교보문고 언어문화사	대한불교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처님이 계신다면 자타카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탄허 서희건 김정빈 · 최병용	교 림 문학수첩 고려원미디어	목동청소년회관
부처님의 생애 무소의 뿔처럼 청소년 불교입문	박경훈 김재영 불교교육연합회	불 광 불 광 대원정사	신흥사 청소년수 련원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 살아있는 모든것은 다 행복하라 불교입문	김형중 이학송 조계종포교원	밀 알 밀 알 조 계 종	전국교법사단
100문100답 불교입문 역사로 읽는 원효 살아있는 모든것은 다 행복하라	편집부 김상현 이학송	대원정사 고 려 원 밀 알	전국교사불자회
젊은 불자들을 위한 수행론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처가 되는 100가지 방법	법륜 법회연구원 김성규	정 토 문화도서 큰 산	부루나청소년교 육회관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법구경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김재영 김달진 광덕	불 광 현 암 사 불 광	대전청소년자원 봉사센타

"겨울방학엔 불서의 바다로"

청소년단체추천 방학 필독불서 24권

불교입문서 7종·경전류 5종등 선정
사찰문화 안내서·불교만화도 유익

즐거운 겨울방학이다. 수능시험, 기말고사 등을 준비하며 빠듯한 학교생활을 보낸 학생들이 조금은 여유를 되찾을 시간이다. 중·고 2년생들은 방학이 지나면 새로운 입시생이 되겠지만 1년간의 긴 등정을 위해서라도 잠시나마 정신적인 재충전이 필요할 때다. 긴장이 풀릴 졸업생들도 방황보다는 새로운 삶의 과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본지는 불교청소년 관련단체 및 기관이 추천하는 '방학동안에 읽을만한 청소년 불서'를 소개한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성타)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 전국교법사단(단장 고우익) 전국교사불자회(회장 박중현) 청소년자원봉사센타(소장 종실) 등 8개 불교청소년단체·기관이 각각 3권씩을 추천해 선정된 불서는 모두 24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문서와 전기류, 경전류, 법문집, 불교만화 등이 다양하게 추천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추천된 불서는 단연 불교입문서다. 〈불교입문〉 〈청소년 불교입문〉 〈100문 100답 불교입문〉 등 본격적인 입문서를 포함, 모두 7종이 추천됐다. 젊은 불자들이 수행의 과정에서 부딪치는 회의와 갈등을 경험적으로 풀어주는 〈젊은 불자들을 위한 수행론〉, 삶의 현장에서 깨달음을 실현케 하는 단계적 불교수행 교본인 〈무소의 뿔처럼〉 등은 실천적인 불교입문서로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만하다.

경전류는 5종(1권 중복), 전기류는 4권, 법문집은 3권이 각각 추천됐다.

이밖에 사찰문화 안내서와 불교만화도 각각 2종씩 추천됐다. 사찰벽화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불교를 흥미롭게 소개하는 〈재미있는 벽화이야기〉, 사찰의 이모저모를 교리적으로 설명한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는 입문서로도 적합하다.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만화 화엄경〉도 빼놓을 수 없는 청소년용 불서다.

김재경 기자

"천수경은 한국불교 독자적 경전"

정각스님 '천수경연구' 펴내…최초 종합 학술서





〈천수경〉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수많은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독송되고 있는 경전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현재까지 몇몇 〈천수경〉에 대한 해설서와 단편적인 논문류가 나와 있지만 체계적인 연구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최근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 간사 정각스님이 펴낸 〈천수경 연구〉(운주사 刊)는 〈천수경〉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연구서로 눈길을 끈다.

정각스님은 문헌분석을 통해 현행 〈천수경〉은 제 천수경류 경전을 포함한 다수의 경전들과 함께 의식집 및 기타 관계 문헌들이 망라, 근래에 체계적으로 편집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현행 〈천수경〉은 1881년 〈고왕관세음천수다라니경〉에 이르러 〈천수경〉이란 독립된 모습을 띄게 되며 또다시 〈현슈경·불설고왕관세음경〉 및 1932년 〈조석지송〉과 1935년 〈석문의범〉 등을 거쳐 1969년 통도사에서 편찬한 〈행자수지〉에 이르러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한국불교 특유의 통불교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현행 〈천수경〉은 밀교와 화엄, 정토, 천태법화, 禪 등의 요소가 결합된 채 모두 관음신앙이라는 특정적 신앙요소로서 종합되어져 있으며, 한국불교에 의해 독자적으로 형성된 경전임을 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동국대교수 보광스님과 김호성(동국대 강사)씨도 최근 '한반도에서 제작된 위의경(疑僞經)에 대하여' '〈천수경〉 신행의 역사적 전개'란 논문을 통해 "천수경은 의범용(儀範用) 위경" "천수경은 의례용의궤(儀軌)"라고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신국판 322쪽, 1만원.

만암·서옹스님 법어 구도기등 모아

고불총림 백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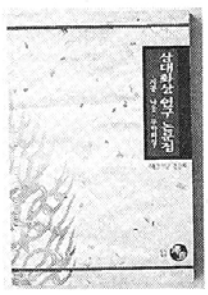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지선)는 고불총림의 복원과 서옹스님 방장 추대식(지난 10월25일)을 기념해 백양사의 역사와 고불총림의 상징적 인물인 만암(1875~1957)·서옹스님의 생애와 법어를 모은 책 〈고불총림 백양사〉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13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백양사의 전통과 1947년 4월 한국최초의 총림인 고불총림 설치(초대방장 만암), 6.25로 인한 폐쇄와 50년만의 복원의 역사를 비롯 만암·서옹스님의 구도 일대기를 기록한 자료와 법어집 등이 수록되어 있다. 반농반선(半農半禪)과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만암스님은 1954년 초대 조계종 종정을 지냈으며 '참사람(無位眞人) 결사'를 주창해 온 서옹스님은 1974년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지냈다. 신국판 157쪽, 비매품.

논문으로 보는 지공·나옹·무학스님

삼대화상연구논문집



봉선사 불경서당 훈문회는 지난 4월4일 회암사에서 열린 지공·나옹·무학 3대화상 추모 학술세미나 발표논문과 그의 관련논문을 보태어 〈삼대화상 연구논문집〉을 도서출판 불천에서 펴냈다.

3대화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선사상, 문학, 불교의식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독특한 고승들. 아직까지 각 사찰에서 삼성전·삼성각의 전각에 3화상의 영정을 봉안하고 조석으로 예경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의 작법의식에 증명단을 설치하고 증명법주로 봉청되는 예에서 3화상 존숭을 엿볼 수 있다.

수록논문은 △지공화상 선사상의 특색(이병욱) △지공화상에 관한 자료와 국내외의 연구현황(허흥식) 등 모두 10편이다. 신국판 317쪽, 8천원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 장순용 엮음



화제의 책

"일찍이 수많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해왔지만 백봉거사(1908~1985)처럼 분별이 뚝 떨어진 무심도인(無心道人)은 보지 못했다."(보림사조실 강혜스님)

無자 화두로 정진하던 중 1963년 1월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숨은 도인. 열반할 때까지 속가에 머물며 거사풍(居士風) 불교의 선양에 노력했으며 청담 전강 구산 경봉 탄허스님 등과 교분이 있었다.

백봉거사 '無字' 소식 일상언어로

작가 장순용씨가 엮은 〈도솔천에서 만납시다〉는 백봉 김기추거사의 생애와 법어를 기록한 책이다.

세속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백봉거사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50이 넘은 나이에 불법을 공부하기 시작, 백봉거사의 깨달음의 소식을 친숙한 일상언어로 자상하게 말해 준다. 그러면서 재가불자가 걸어야 할 성불의 길을 제시한다.

〈세계사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5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6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7	두 문을 동시에 투과한다	박 영 재	불 광
8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9	네 발밑부터 살피라	정 념	장 승
10	경허선사	이 흥 우	민 족 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닦는 마음 밝은 마음



최 정 윤
〈가톨릭대 교수 · 정신과〉

인류의 긴 도정에는 뛰어난 영적 성장을 이룬 분들이 가끔씩 나타나 주변에 빛을 뿌리고 중생들의 정신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것 같다.

故 백성욱박사님도 그러한 분들 중 한분으로 내무부 장관과 동국대 총장직을 역임하는 등, 세간에서 출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금강경〉 정진을 실천하며 은퇴 후에는 경기도 부천 소사에서 '백성농장'을 경영하며 인연있는 제자들에게 마음 닦는 법을 가르쳤다.

이 책 〈닦는 마음 밝은 마음〉(용화 刊)을 쓴 김재웅 법사님은 젊은 시절 백박사님을 모시고 마음 닦는 공부를 하였던 제자들중 한분으로 현재 '금강경독송회'를 이끌며 인연있는 여러분들에게 스승으로부터 가르침받은 마음닦는 법을 전해주고 있다.

이 책에는 김재웅 법사가 스승에게서 직접 들은 인생이 가지면 병이 되고 참으면 마침내는 폭발하게 됩니다. 공부하겠다면 탐심이요, 공부가 왜 안 되나 하면 진심이요, 공부가 잘 된다 하면 치심이니 이 세 가지 아니하는 것이 수도일진대 꾸준히만 하시되 아니 하지만 말면 됩니다."

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절하고도 절묘한 가르침이다. 특히, '바치는 법'은 서양 심리학을 공부해 법문과 자신의 수행여정, 도를 찾아 자신이 수행하는 도량에 직접 온 젊은이들과 나눈 대화들을 꾸밈없이 정성스럽게 서술해 놓아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공부거리로 삼아 마음 닦아나가는 구체적인 실례들이 생생하게 적혀 있다.

생활속 마음닦는 방법 '생생'
편견·선입견 지우기에 도움

필자의 경우 뒤늦게 불교를 만났으나 수행방법이 막연해 한동안 방황(?)을 했었다. 그때 이 책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여기에 소개된 실천방법론을 발견하고는 목마름 끝에 감로수 같은 반가움을 느꼈다. 이 책의 한 장을 펼쳐보자.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 읽으시되 직접 부처님 앞에서 마음닦는 법을 강의 듣는 마음으로 믿어 들으시고 실행하여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십시오. 공리를 자은 필자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필자는 직업상 정신과 임상장면에서 마음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그들이 스스로 만든 온갖 생각과 감정들에 얽매어 강박증, 망상, 전환증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것을 보아왔다. 비단 이 사람들뿐이겠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사람들도 수많은 편견, 선입견 등으로 얼마나 스스로를 속박하고 어둡게 하는가. 이런 우리에게 밖에서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모든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만든 분별인 줄 알고 하나하나 부처님께 바쳐 가노라면 궁극에는 본래의 고족한 나, 내 안의 불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가르치는 법.

이 책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지극한 공경심으로 그 법을 실천해 보였던 김재웅법사님의 구도정신이 구절구절 넘쳐나온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기도 —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화해의 손잡고 극락기원"

불교극 '노미오와 주리애' 24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로미오와 줄리엣' 번안 시나위 연주단 국악 가미 영산재 대미 장식

'한복을 입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스님을 주례로 하여 불교 결혼식을 올리고, 두 청춘남녀의 죽음을 맞게된 양 가문은 함께 영산재를 올려줌으로써 망자들의 극락길을 기원하며 진실한 화해의 손을 잡는다.'

비극적인 사랑의 대명사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국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수세기에 걸쳐 온인류의 심금을 울려온 세익스피어 작 '로미오와 줄리엣'이 한국적인 불교극으로 시각화돼 상연되고 있어 화제다. 인천시립극단이 제21회 정기공연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번안한 '노미오와 주리애'(연출 이승규)를 공연하고 있는 것(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 오후 3시).

작품의 무대는 조선조 후기 수원. 주진사(캐플렛家)의 딸 주리애(줄리엣)와 노진사(몬태규家)의 아들 노미오(로미오)는 주진사댁 환갑잔치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다. 두 양반가문은 원수지간이므로 노미오와 주리애는 무광스님의 주선으로 은적암에서 비밀결혼을 한다. 그러나 수원장터에서 주진사의 조카 주석철(티볼트)이 말다툼 끝에 노미오의 친구 박갑수(머큐쇼)를 죽였고 노미오는 주석철을 죽였기 때문에 노미오는 강화로 추방된다.

한편 아버지가 박양수(파리스)와의 결혼을 강요하자 주리애는 무광스님과 상의한 끝에 죽은듯이 보이는 비약(秘藥)을 마신다. 이 소식을 들은 노미오는 강화에서 달려와 은적암에서 주리애를 발견하고는 절망적흥취를 더하고 능화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천 구양사 주지)의 지도로 구현된 노미오와 주리애의 결혼식 장면과 두사람의 극락길을 천도하는 영산재가 한결 작품의 품격을 승화시키고 있다.



◇노미오와 주리애의 죽음을 일게된 양 가문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있고 무광스님이 두 집안의 화해를 설득하고 있는 장면.



◇5·18의 아픔을 형상화한 고영을作 '5·18 영령들이여 극락왕생하옵소서'.

끝에 음독자살하고 뒤늦게 깨어난 주리애 역시 노미오의 죽음을 발견하고 자살하게 된다.

전통민속 및 불교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나위 연주단이 이끄는 애절한 국악연주와 김영화씨의 도창이 한껏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번안해 보여주는 '노미오와 주리애'는 특히 15분동안 대미를 장식하는, 죽은 이들의 극락길과 양가문의 갈등과 미움을 씻는 영산재의 화려하고도 고풍스런 의식이 출연진은 물론 극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도 참회와 기원이라는 동참의 자리를 마련,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는 평이다.

이경숙 기자

"5·18 영령들이여…"

고영을 탱화전

18~24일 조형갤러리 내년 3월 파리서 초대전

현실의 역사의식을 전통적인 탱화기법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추구해온 고영을씨(광주여고 교사)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조형갤러리에서 탱화개인전을 갖는다.

30여점이 전시되는 이번 탱화전에서 우리 현대민족사의 최대 아픔으로 여겨지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5·18 영령들이여 왕생극락하옵소서', 독도 문제가 한참 가시화된 지난 2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독도 방문을 모티브로 조성한 '독도는 우리땅' 시리즈, 우리 사회의 종교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을 상징하는 '극락을 방문하는 성모님' 등의 작품은 그의 이러한 현실의식을 잘 대변해 주는 대표적 작품들. 전남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고씨는 지난 81년부터 탱화부문 무형문화재 구봉스님에게 탱화를 사사해 왔다.

내년 3월 프랑스 파리의 갤러리 쉴브에서 탱화초대전을 가지며 내년 가을에는 일본에서의 전시회도 계획되어 있다.

우바이무용단 창단 '춤 포교'

21일 기념공연… 단원 30여명 학문적 연구

무대위에서 펼쳐지는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가뿐 호흡속에 녹아든 불법의 진수를 맛보게 할 불교무용단이 창단된다. 오는 21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중강당에서 창단공연을 갖는 '우바이무용단(단장 심산스님)'은 무용전공자들을 주축으로 30여명의 단원들이 춤으로써 포교하며 불교문화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해나가게 된다.

우바이무용단은 창단공연에서 1부 '바람소리-그대마음은 어디로 가고있는가'를 비롯 선(禪)무용 형식의 '생명의 춤'과 '북소리-그 울림', 능화스님(영산재 이수자)의 범음에 맞추어 '나비춤' '바라춤' 등을 공연하며, 2부에서는 임동창씨의 피아노연주와 장사익씨의 노래 '하늘가는 길'에 맞추어 즉흥적인 춤을 선보이는 실험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생명의 춤'에서는 진정한 생명의 몸짓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과 그 답을 춤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하늘가는 길'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기쁘고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는 즉흥적인 춤으로 꾸며져 모두가 한번쯤은 직면하게 되는 삶의 문제를 불교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상임안무가 이명미(혜화여고 무용교사)씨는 "앞으로 전통불가에서 추었던 춤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춤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우바이무용단은 매년 1~2차례의 정기공연을 갖게되고 각종 불교계 행사에서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내년에는 서울공연과 몽골초청공연까지 예정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아름다운 몸짓으로 불법을 전하는 '우바이무용단'이 오는 21일 창단공연을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문화 소식

'한국음식대관' 간행

사찰음식등 우리 전통음식에 관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한국음식대관〉이 간행될 예정이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창립 1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한국음식대관〉은 51명의 전문집필진에 의해 3,039종에 달하는 전통음식을 분야별로 묶어 전 6권에 담는다.

내달 발간되는 제1권 '한국음식의 개관'은 한국음식의 역사를 비롯 영양, 재료, 조리원리와 명절풍속, 문헌 및 식생활의 전망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 후반기에는 6권째인 '궁중의 식생활, 사찰의 식생활'을 발간하고 년차적으로 매년 1권씩 간행 오는 2001년 전 6권을 완간한다.

'…사찰의 식생활'에는 사찰음식의 이론적 배경, 발우공양의식, 조리법 등 사찰음식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소개된다.

전통문화학교 부여에

전통문화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오는 99년 3월 개교예정인 4년제 대학 한국전통문화학교의 부지로 충남 부여 규암의 백제역사재현단지가 선정됐다〈본지 71호 13면 참조〉. 백제문화유적이 집중 분포돼 있는 부여에 설립되는 전통문화학교는 현장실습 등 실기위주의 교육을 통해 4년제 대학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에 해당하는 전통문화사학위를 수여한다.

불심시심 〈72〉

강마을 풍경

百尺飛樓背水陰 (백척비루배수음)	물을 등지고 백척으로 나는 누대
檻前春物碧森森 (함전춘물벽삼삼)	난간 앞 봄풍경 푸르름 거듭 거듭
雲收白岳千層玉 (운수백악천층옥)	구름 걷힌 흰 뫼는 천 층의 흰 구슬
日謝滄波萬頃金 (일사창파만경금)	창파로 지는 해는 만 이랑의 황금
繞座風燃歸落雁 (요좌풍연귀락필)	자리에 둘린 풍경 붓 끝에 모여 떨어지고
滿庭花鳥入新吟 (만정화조입신음)	뜰에 가득한 꽃 새는 새로운 시구로 들다
江天無限晴光好 (강천무한청광호)	강마을 끝없이 개인 풍광 아름다우니
奇賞平生熟似今 (기상평생숙사금)	이 기이한 감상 평생에 오늘같음 있을까

이 시도 지난 주에 보았던 무경대사의 시이다. 명경루(明鏡樓)에서 지은 시이다. 명경루라는 누대 이름이 암시하듯이 이 누대는 물을 배경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그러기에 물을 등졌다 하였다. 물에 비쳐져서 그러하기도 하겠지만 누대가 한층 더 높이 솟은 것으로 보인다. 이 높이 솟은 모습에서 전편의 시상이 일었던 것이다.

누대에 오르면 누대 앞의 풍경에 시선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이때 눈앞의 풍경은 봄날의 푸르름으로 가득하다. 이 한 마디로 누대를 에워싼 모든 경지를 휘잡아 놓은 것이다. 다시 시선을 높이 들면 앞 산이 보이고, 산 위는 한 점의 구름도 없고 흰 뫼뿌리만 드러나 있으니 이 뫼뿌리야말로 천 층으로 솟은 백옥이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면 다시 고개를 숙여야 함이 자연스러운 몸가짐이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강물에 멎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럴 때 시선안에 드는 것은 끝없이 출렁이는 황금물결이다. 왜 황금일까. 때마침 지는 햇살이 강심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강 마을의 석양 풍경이다.

다시 시선을 누대 안으로 옮겨 작가의 주변으로 끌어당겼다. 나를 둘러싼 풍경이 모두 나의 붓끝으로 모여들었다. '돌아와 붓 끝에 지다(歸落筆)'는 표현이 돋보인다. 다시 시선을 조금 옮기면 뜰의 상하에 꽃과 새가 반긴다. 저절로 시의 소재로 떠오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이 한 편의 시가 탄생한다.

이 모두가 오늘 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풍경이다. 이렇듯 단순한 것같은 풍경이지만, 이를 대하고 있는 작자에게는 아직 느껴보지 못한 광경이다. 왜 이런 풍경이 처음이겠는가 항시 대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듯 하루하루의 생활을 더없이 새롭게 느끼면 그것이 바로 벌천지요, 만약 신선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신선이 아닌가. 대사의 시는 이런 점에서 바로 대중에 일깨움을 주는 시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조선전기국보전에 나오는 15세기 '금동보살좌상'(국보 170호).

불교와 유교문화 조화 '엿보기'

호암갤러리 '조선전기국보전'

성보 28점등 202점 전시 '몽유도원도' 감상 절호기회

조선개국부터 임진왜란까지 2백여년에 걸친 조선전기 문화유산의 전반을 조망해 볼수 있는 대규모전시회 '조선전기국보전'이 지난 14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60일간 호암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불상 범종 불화 사리기 등 불교미술품 28점을 비롯 서화 서예 나전 도자기 등 170건 202점이 전시되는 이번 국보전에는 특히 조선전기 최고의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는 안견의 그림 '몽유도원도'가 지난 86년 전시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일본에서 건너와 전시되어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번에 전시되는 조선전기 불교미술품들은 고려시대에 화려했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분위기에 걸맞는 독특한 조선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즉 토속적이고 민중적으로 전개되는 조선후기 불교미술의 양식적 전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전기의 문화는 건국의 새로운 이념인 유교를 바탕을 전개되어 나가지만 유교와 불교, 조선과 고려의 요소가 혼합된 모습을 보여주며, 보다 한국적인 미의 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전시와 관련 오는 1월22일(오후 2시)에는 삼성본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홍윤식 교수(동국대 예술대학원장)의 '조선전기의 불교미술' 학술강연회가 개최된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세상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책!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여시아문의 마음 밝혀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밝히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여시아문은 '듣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천태종은 지난 12일 타워호텔에서 천태불교문화연구원 개원하고 한·중·일 강연회를 개최했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 개원 기념 강연회

"천태의 가르침 바르게 이해 현대사회문제 해결하자"

"천태사상의 중심인 '一念三千(일념삼천)'의 대승불교 사상에 입각하여 한·중·일 천태종이 인류 상호간의 갈등과 환경오염등 사회문제해결에 적극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천태불교문화원개원 기념강연회에서 제시됐다.

'천태사상과 현대사회'를 공통주제로 중국불교문화연구소 부소장 왕신박사, 일본 천태종 오쿠보 료순승정, 동국대 이영자교수등 3국의 천태학자들이 강연했다.

먼저 이영자(동국대)교수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절박한과제는 인구증가 식량·에너지고갈등과 이를 수반한 환경오염과 종교현상의 다원화다"고 전제하고 "중국천태종 제6조인 형계담연스님의 '변화하는 물질은 하나의 동체'라는 티끌하나에도 불성이 존재하는 진여 중도사상에 따라 현대인류의 과제해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쿠로 료순승정는 "불교의 목표가 자아의 인격향상과 그로인한 사회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말하고 "과학기술의 응용이 국가나 개인의 탐욕을 위한 것이어서 인류는 여러가지 위기를 맞고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왕신박사도 "천태사상인 一念三千諸法(일념삼천제법)은 관법의 대체다"며 "이에따라 시대와 사회에 부응하고 인류이익과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개원식에는 서돈각불교진흥원이사장 송석구 동국대총장 김용문종무실장을 비롯 권익현 함종한 주양자의원등 국회의원 16명이 대거 참석해 시선을 끌었다.



◇오쿠보료순승정



◇왕신 교수



◇이영자 교수

개원식에서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법어를 통해 "연구원개원이 종단의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불교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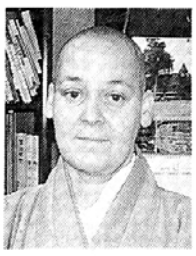
이어 이재창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구원의 창립으로 천태교학이론의 정립과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불교학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은 내년에 동서양의 불교학자들을 대거 초청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천태교학이론 정립 불교학 발전에 기여"

호주에 세워지는 한국불교도량

13만평 규모 '멜본 정혜사'



◇지광스님

호주인 비구니 지광스님 불사앞장

호주인 비구니 지광(智光)스님이 한국불교 선(禪)의 진수를 보여주고 호주 불교인의 수행도량이 될 '정혜사(定慧寺)'를 세우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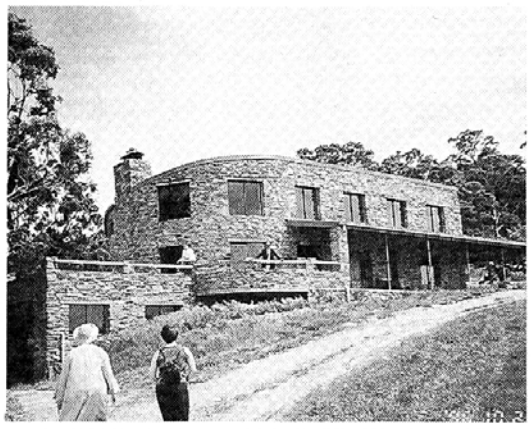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멜본의 '달스포드'에 약 13만여평의 규모로 조성될 정혜사는 앞으로는 불일국제선원의 호주분원으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혜사가 들어설 달스포드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대리석 건물이 있다. 지광스님은 이 건물을 개축해 지상층은 법당과 선방으로 만들고 지하 1층은 식당으로 새롭게 단장해 정혜사로 개원할 계획이다. 이 건축불사에는 현재까지 대지매입금 5천여만원이 소요됐으며 앞으로도 기존건물 수리비까지 약 2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혜사' 건축불사에 앞장선 지광스님은 "기존 대리석 건물의 개축에 머물지 않고 별도의 수련장과 법당을 건립해 앞으로 사부대중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가꾸겠다"며 원력을 밝혔다.

지광스님은 지난 1979년 한국을 방문해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송광사에서 약 10여년간 수행했다. 또 지광스님은 한국에서 운문사 강원 시절 교리공부를 하며 강원생들의 영어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정혜사가 들어설 달스포드는 호주에서 유명한 온천지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도시 '멜본'과는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국제선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호조건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정혜사로 새롭게 단장될 2층 대리석 건물. 호주 멜본의 달스포드는 광활한 초원과 온천으로 유명하다.

오종욱 기자

싱가폴 연화사 개원

원명스님 2년 결실

싱가폴에 최초의 한국사찰이 개원된다.

싱가폴 연화사(지도법사 원명스님. 국제연등회관원장, 조계종 종회의원)가 13일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증명법사로 부처님 점안식 및 개원법회를 2백여 현지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성타스님은 법어를 통해 "싱가폴에 첫 한국사찰이 들어선 것은 원명스님을 비롯한 이곳 불자들의 불심의 결실"이라고 치하하고, 한국불교와 싱가폴 불교의 원할한 교류와 이를 토대로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일익을 담당해 줄것을 당부했다.

연건평 50여평의 현대식 단독 2층건물의 연화사에는 법당과 요사 2개 공양간이 들어서 있다.

현지 불자 80여 세대가 신도로 등록, 법회를 보고 있는 연화사는 개원에 앞서 이미 2년전 부터 지도법사 원명스님이 장소를 옮겨가며 법회를 계속해왔다.

한편 소련포교에 앞장서 왔던 원명스님은 연화사 개원에 앞서 지난 95년 인도네시아에 '조계종 자카르타포교원'을 개원했다. 자카르타포교원은 현재 2백여 세대의 불자들이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화엄종 약사사 대웅전 낙성

화엄종은 지난 10일 종정 구하스님 정희수 종회의장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본산 인천 약사사 대웅보전 및 극락전 낙성법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낙성법회에서 이어 정희수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불도의 불교적 서원을 이루고자 종단숙원사업으로 약사사 대웅전 극락전 등을 5년불사로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공된 약사사 대작불사는 대웅보전 70평 극락전은 22평 종무소 25평등으로 건립됐으며, 도심포교를 위한 화엄불교회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종단소식

20일 종단진흥회 현판식

대한불교종단진흥회(회장 일공)는 오는 20일 오전10시 종로구 낙원동 파고다빌딩 3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02)766-4848

"천태종, 종정협과 무관"

천태종은 지난 11일 "대한불교종정협의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가입종단명부에 오른 종정예하의 이름은 천태종과 사전협의없이 종정협의회 임의로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종정협의회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천태종은 17일 종정협의회 주최 '국민민복과 호국안보를 위한 불교지도자송년대법회'와 관련 교계에 배포된 보도자료와 초청장도 종단과 무관하다는 것을 밝혔다.

방송가 소식

청주BBS 23일 시험 방송

불교청주방송이 오는 23일부터 오전 오후 각 1시간씩 하루 2시간 시험방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초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96번지 충청매일신문빌딩 8층으로 이주한 불교청주방송은 그동안 현재 시험방송을 앞두고 부모산 송신소 안테나 설치와 연주소 설비공사등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23일 시험방송이 시작됨에 따라 불교청주방송의 개국은 사실상 97년 1월말~ 2월경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현재 내정돼 있는 진흥건설 박재선사장의 불교청주방송 사장 인준등의 문제또한 시험방송일 직전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교TV 인지도 8위

케이블 가입자 1천명 조사

불교TV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서 지난 9월 16일부터 한달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케이블TV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6케이블TV 시청행태' 조사결과 채널 인지도부문에서 8위에 올랐다.

조계종 종조논쟁 다시 가열

계간 '다보' — 심재열·정태혁씨 주장게재

조계종의 종조는 과연 누구인가?

계간 〈다보〉(통권 제20호)에서 심재열씨(원효사상연구소 소장)와 정태혁박사(동방불교대 학장)가 '보조스님과 태고스님의 조계종 종조론'이라는 제목하에 지상논쟁을 벌였다.

심재열씨는 '조계종조는 왜 보조국사인가'라는 논고에서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의 내용을 인용해 서산대사가 대혜종고의 간화선법을 전승한 보조국사를 당연히 조계종조로 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인 간화선은 보조국사에 의해 시작되었으므로 보조국사가 곧 종조임을 선언한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계종은 보조국사 입적 3년 뒤인 고려 강종 2년부터 국가에서 공칭했고, 조계종선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158년 뒤에 국사가 된 태고가 조계종조가 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박사또한 '태고보우국사의 원융사상과 한국불교의 법맥' 논고를 통해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사상의 바탕은 화엄원융사상이며 태고는 염불과 선을 원융한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불교의 법맥이 태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엄원융사상은 법화경의 개삼회일사상과도 상통하는 것이나 보조는 그의 염불요문에서 염불문은 비하하였으므로 원융회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태고가 가지산파의 선승으로서 가지산파의 법통만을 이은 것이 아니라 구산오교를 회통시킨 원융부를 설치하여 선과 교를 회통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은〉

목탁소리

'반환불가' 억지

한 명 우 〈취재2부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은 경복궁내에 있는 25점의 불교문화재 반환을 요청한 조계종측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답을 보내왔다. 그 이유가 불교문화재도 민족문화재이므로 공공기관이 보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유물들을 옮겨온 대부분의 사찰들이 폐사가 돼 관리가 어렵고 도난의 위험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좀더 생각해 보면 이들 불교문화재가 어째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유물은 제자리에 있어야 그 역사적 가치를 올바로 전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중앙박물관측은 대부분의 사찰이 폐사가 돼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봉인사부도암사리탑(보물 928호)등 3점이 있었던 사찰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거돈사원공국사승묘탑(보물 190호) 등 3점이 있었던 폐사지에는 현재 이와 짝을 이룬 다른 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폐사지에서도 사찰이 복원되는 등 유적복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래 자리에서 참배객들을 맞이하는 것이 그 외형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치까지도 널리 알릴 수 있다. 최근 홍윤식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의 "문화재의 가치는 단순한 양식이나 형식에 의한 물적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닌 그 삶의 방식까지도 아울러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은 곰곰 되씹어 볼만한 대목이다.

정부는 내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했다. 대부분 문화재 전문가들의 '원래 위치로의 반환'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문화재 바로세우기' 정책에도 이번 '반환 불가' 결정은 맞지 않는다. 당장 모두를 되돌려 줄 수 없다면 원래 위치가 확실하게 밝혀진 유물만이라도 우선 제자리로 돌려주고, 나머지 유물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반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이들의 생각이다.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12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8, 광주 삼복서점 : 222-0258
조계사 앞 삼보원 : 732-9904, 부산 영광도서 : 816-9500
대구제일서림: 424-0801, 대전문경서적: 252-8558
마산학문당 : 46-2925, 인천 대한서림 : 762-7337
김해 오복당 : 36-2105, 전주 홍지서림 : 88-531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1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추가 및 편입생 모집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 모집인원 : 10명(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 원서접수 : 1996년 12월 9일 ~ 12월 23일
■ 개강일시 : 1996년 12월 23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教大學
儀式教育院
學 長 張 二 斗
副學長 鄭 大 隱

2천만의 깨달음을

나를 바로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 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제주지사	·전화	064-55-9800
사천지국	·전화	0593-32-5160
강릉지국	·전화	0391-647-9317

현불뉴스

통도사 화엄산림 입재

통도사(주지 월파)는 11일 경내 설법전에서 96년 화엄산림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번 법회에는 월하종정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했다.

내년 1월8일까지 전계대화상 청하스님을 비롯 28명의 법사스님이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1시 하루 2차례 법회를 갖게 된다.

삼화사 관람료 합의

동해 삼화사(주지 원행)는 지난 11월 29일 동해시청에서 관계자 실무회의를 갖고 합동징수액의 7%를 문화재관람료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송광사 정혜사 건립

승보종찰 송광사 법성료가 해체되고 강원의 중심건물 정혜사가 건립돼 초발심자가 수행에 몰두할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난다.

내년 1월 준공될 정혜사는 10칸 75평으로 건물양식은 주심포 팔작겹처마형식으로 선원인 수선사와 짝하여 마주하게 됐다.

22일 복지종사자대회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월주)이 주최하고 한국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각현)가 주관하는 불교사회복지대회가 오는 22일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다.

파라미타 부산지부 결성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지부(회장 성오)는 14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했다.

범어사 종토세 납부

범어사(주지 성오)는 지난 10일 비종교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 체납액과 가산금 8억원을 납부했다. 이로써 4년여에 걸친 금정구청과의 마찰이 완전히 해소됐다.

성보관리지침 시달

조계종 문화사회부(부장 성관)는 동절기를 맞아 '사찰에서의 성보관리 지침'을 마련, 전국사찰에 시달했다. 문사부는 11월 조계종보를 통해 △주요문화재 정밀사진 촬영, 기록보존 △도난우려성보 특별(위탁)관리 △거동수상자 인적, 차량번호기록 △낡은전선교체 및 난방기사용 주의 △촛농에 의한 탱화, 불상 훼손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사이비종교 심각한 사회病…"대책을 찾자"

가치관 혼란·소외감 '원인'

정부 신고센터운영등 척결기능 미약
기성종교에도 책임…신행혁신돼야

아가동산 집단타살사건과 영생교 신도 암매장사체 발굴을 계기로 사이비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성종교의 반성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종교학자들은 가치관의 혼란과 무한경쟁시대의 상대적 박탈감, 기성종교의 양적팽창 지향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우리 사회는 물론 기성종교가 사이비종교가 발흥하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서교수(서울대 종교학과)는 "깨달음 혹은 계시, 종교본연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 종교행위를 사이비종교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기성의 정통종교도 세속적으로 타락하면 사이비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며 기성종교의 반성을 촉구했다.

김교수는 또 아가동산 사건 같은 경우가 더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미 이 집단에 대한 투서가 많았음에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당국의 안일한 처사를 비판했다. 특히 문체부 사이비종교신고센터가 제역할 못하고 있다며 종교전문가들로 구성해 실사를 비롯한 현실적인 대책수립 및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수한 신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교가 앞장서서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끄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총무원은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신뢰를 떨러뜨리는 현상이므로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사회부장 성관스님은 "사이비종교에 대한 대책수립을 마련, 곧 발표할 계획"이라며 "부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신행혁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이비종교는 △시한부 말세론 △지상천국사상 △교주자신의 신격화 △신비체험 강조 △각 종교의 혼합주의 △경전의 아전인수적 해석 등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사이비종교는 지극히 폐쇄적인 운영형태를 띠고 있어 실체파악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백여곳의 사이비종교집단이 있으며, 신도만도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종교인 성도덕 보수성향"

서울대 9개 단과대생 설문조사

배우자 종교에 민감
불자 가족개념 중시
동성연애·매춘 '부정'

종교인이 결혼관, 혼전 성관계 등에 대해 비종교인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등 종교가 성도덕의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종교사회학교실(지도교수 김종서)이 최근 서울대 9개 단과대생 1백3명(신자 46.6% 비신자 53.4%)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종교와 성도덕에 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꼭 하겠다'는 항목에 비종교인은 18.4%, 종교인은 23.3%가 대답해 종교인이 결혼에 대해 비종교인보다 고전적인 가족개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3.3%의 종교인중에서 '적당한 배우자가 없으면 독신으로 살겠다'고 대답한 개신교 52.6% 가톨릭 58.8%와는 달리 서울대 불자학생 80%가 '결혼은 꼭 해야한다'고 응답해 종교인 중에서도 불교인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의 종교고려 여부와 혼전 성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교인이 각각 30.1% 14.6%, 비종교인이 각각 20.3% 8.7%의 보여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성윤리관을 중요시하는 뚜렷한 경향을 드러냈다. 또 동성연애 매춘 자위행위에 대해서도 종교인의 부정적인 견해가 비종교인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인이 비종교인에 비해 보수적인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이같은 결과는 종교의 성윤리에 대한 영향정도를 가늠케하는 근거가 돼 주목된다.

한편 응답자 1백3명중 불교인은 10명, 개신교 19명, 가톨릭 17명, 비종교인 55명, 기타 2명이다. 〈필〉

WFB대회 내년 9월 서울·경주서

집행이사회 결정…한국본부등 3곳서 공동유치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20차 대회가 내년 9월 서울과 경주에서 열린다. WFB 집행이사회는 지난 11월 29일 네팔 카투만두 마운틴호텔 국제회의장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의 3개 지부인 한국본부(회장 박동기) 연합회지부(회장 김광태) 원불교지부(회장 전팔근)가 공동 유치하고,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윤)와 대각사조실 도문스님이 후원자가 되어 WFB 제20차 및 WFBY 제11차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이사회에 한국측에서는 박동기회장과 불교단체총연합회 김명윤회장, 도문스님, 원불교지부 전팔근회장 등이 참석했다.

WFB 한국대회는 당초 올 11월 개최키로 되었으나 한국측의 준비미비로 개최가 불투명했었다. 박동기회장은 "대회 일정만 연기되었을 뿐 '5계파지로 세계평화를'이라는 주제는 변함없다"며 "대회 개최 시기는 대통령선거, 각 종단의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관스님 석방 촉구
동국대 총동문회등 3곳

동국대학교 승가단체인 총동문회(회장 월탄) 석림동문회(회장 혜총) 동림동문회(회장 성응)는 지난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구속기소된 진관스님의 석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승가제단체는 이날 전달한 서한을 통해 종회의원이자 불교인권은동가인 진관스님의 석방을 위해 종력을 모아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선학원 중앙선원은 11일 한국불교계정화사 간행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정화사 간행에 들어갔다(좌로부터 성돈·범행·성해스님).

경주시민 "방내리역사 지지"
경실련 여론조사

대다수 경주시민들도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로 건천읍 방내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성타스님)은 지난 11일 동국대 지역경제연구소(소장 임배근)에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의 입지에 관한 시민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59.5%가 방내리를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꼽았으며, 35.7%는 내남면 덕천리, 4.8%는 '기타'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건천읍 방내리는 불교계와 고고학회를 비롯한 문화계에서 △문화재밀집지역인 '원경주'를 복원하고 △경주시민의 개발욕구 해소 △경주남산 보호를 위해 역사후보지로 지지해온 지역이다.

동국대 지역경제연구소는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4백17명을 무작위추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주경실련은 이같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건천읍 방내리에 경주역사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실련은 또 △문화유적으로 재산권 피해를 당해온 주민을 역세권으로 이주시키고 도심을 '원경주'로 복원하기 위한 '고도보존특별법'제정과 △신경주 건설은 경주시 주도로 추진하되, 개발이익은 주민들의 이전과 피해보상, 도시환경 개선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학원 '불교정화사간행위'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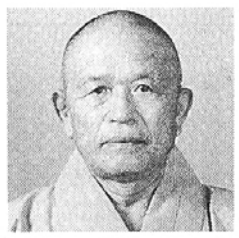
(재)선학원 중앙선원이 근대 조계종사 간행에 나섰다.

중앙선원장 성해스님은 지난 11일 서울 중앙선원에서 한국불교계정화사 간행위원회 현판식을 갖고 일제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계종의 역사를 정리해 책으로 출판한다고 밝혔다.

성해스님은 "오랜동안 조계종 정화관련 자료를 수집했다"며 "앞으로 3년간 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정화사를 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집필은 최유심(불교춘추)주간이 맡는다.

태고종 전총무원장 서봉스님 열반



태고종 제14·16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서봉스님(신촌 봉원사 조실)이 지난 13일 오전 6시30분 봉원사 문수각에서 입적했다. 세수 81세 법랍 68세.

태고종은 서봉스님의 장례를 종단장으로 지난 15일 오전11시 신촌 봉원사에서 거행했다.

서봉스님은 1928년 경기도 용주사에서 윤호순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여 1942년 혜화전문학교(동국대 전신) 불교학과 졸업 1962년 불교조계종 총무원교무부장, 사회부장 역임, 1964년 불교조계종 종회의원 1971년 태고종 종회 부의장 1984년 태고종 제14대 총무원장 1993년 태고종 제16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신촌 봉원사에 주석해 왔다.

신령나는 한 빛은 본래 그림자가 없고
나고 죽는 길은 문이 없도다
만일 생사의 뜻을 묻는다면
모래밭의 학의 세 소리니라.

은평구청 불심회 12일 창립

사찰순례·참선정진 통해 불심·친목도모

서울 은평구청 공무원 불자 모임인 '불심회(회장 황용학)'는 지난 12일 은평구청 문화예술회관에서 회원 90명과 가족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불심회는 이날 회장에 은평구청 재무국장 황용학(59)씨를 선임하고 고문에 은평구 사암연합회 성운스님과 이배영 구청장을 추대했으며 수국사 주지 자용, 삼보사 주지 지원, 진관사 주지 진관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했다.

불심회는 매달 정기법회와 사찰순례, 참선정진 등을 통해 직원 상호간의 불심과 친목을 돈독히 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천주교 신도모임이 활발한 활동을 벌여 온 은평구청에는 약 150명의 불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90명이 불심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ICOMOS 실바총장 한국방문 1월로 연기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해인총림대책위(위원장 보광)와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최열)은 ICOMOS(세계기념유적이사회) 실바 사무총장의 한국방문을 재추진키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실바 사무총장의 방문시기는 빠르면 내년 1월말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바사무총장은 팔만대장경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해 해인골프장 예정지 답사, 특별강연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있으나경유지인 싱가폴에서 싱가폴 출입국관리국의 탑승거부로 방한이 취소됐다.

동국대 일산캠퍼스 계획 '순조'

땅 2만5천평 매입…내년 기공될듯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9일 일산 제일은행부지 2만5천평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송석구총장 취임 2주년및 동국90주년 기념행사 성료와 관련 교계기자간담회에서 밝혀졌다.

이로써 동국대는 내년부터 일산 제3캠퍼스기공에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서울본교의 공과대 이과대와 경주의 의과대를 이전하고 한·양방 1천병상 규모의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동국대는 개교 90주년을 맞아 웅비의 도약대를 마련한 만큼 개교 1백주년이 되는 2천6년까지 10년간 지속적으로 교수발전제 정착과 학부제시행 일산캠퍼스 건립 불교종합병원 건립 학교발전기금 3천억원마련등의 사업으로 세계 1백대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마음 내가 한줄 몰라야

일을 하면서도 하는줄 모르고 보면서도 본줄 모르고, 밥을 먹고 다니면서도 먹은 줄 몰라야 한다. 많가지 법을 손으로 주무르고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줄 몰라야 하니 그것이 홀연히 깨닫는 지름길이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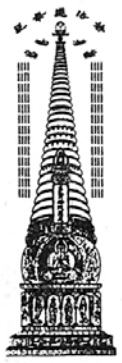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발휘되어 현세에 사는 불자들의 만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는"

"신비의 佛탑다라니에 대한 영험록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가로)63㎝×(세로)160㎝

■부산, 경상남북도 대한불교 상담문의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864-3740

■기타지역상담문의및 책자신청 ①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佛탑다라니의 신비스러운 영험력!

①본회의 불탑다라니에서만,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氣(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②이 氣(기)는 심신깊은 불자에게는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위신력을 발휘하며,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변화시킵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불탑다라니를 몸에 대면, 몸속에 氣(기)의 흐름이 감지기 강해짐을 직접 느낍니다. 이 기(氣)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3개월 정도 몸에 계속적으로 받게되면, 약했던 운기가 강해지고 그로인해 운세가 최상으로 바뀌면서 모든 일이 저절로 막힘이 없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③그리고 금강경 신탑다라니를 이용하여 인체와 영계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강·약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인간의 길흉화복까지 판단할 수 있으며 조상령의 천도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이 그대로 적중된다는 사실입니다.

• 현재 자기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지? •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 조상님의 영가가 천도되었는지? • 하고자하는 일이 성사될 것인지? • 무슨 일을 하면 될 것인지? • 대학입시에 합격할 것인지? • 어느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 현재 앓고 있는 병환은 낳은 것인지? • 언제까지 아들 것인지? 등 어떠한 일이든 금강경 신탑다라니안에 적어 넣고 기(氣)테스트를 해보면 이루어질 것은 氣(기)가 나오고,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기 어려운 것은 氣(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氣)가 나오면 십중팔구(80~90%)는 거의 그대로 적중된다는 점입니다. 氣(기)가 나오지 않을때는 2개월이상 佛탑다라니 氣(기)를 받으면 운세가 바뀌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허다합니다.

④또한 우주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온갖 영(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승에서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는 인간의 몸에 빙의되고, 관념파장을 일으켜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되는 일이 없고, 집안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이때 불탑다라니를 집안에 소장하거나, 몸에 지니고 생활하거나 조상의 묘에 안장시켜드리면, 이런 영들이 하나 둘 씩 천도되기 시작하면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영들이 천도되어 떠나가며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저절로 풀려 나갑니다.

⑤불탑다라니를 부처님에 대한 진실된 기도와 병행치 않고 단순히 부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용하는 분이나, 타종교인에게는 영험력이 일어나지 않고 氣(기)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佛탑다라니를 이용한 기(氣)테스트 방법과 처방전이 수록된 스님용 책자와 영험록 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 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 주는 방편으로 신도들께 사용해 주심으로써,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 조성경위와 사용방법 등이 같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책만 보셔도 충분히 참고가 되며 스님용 책자요청은 가능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덧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건강백세 ㉞

간 ①

간은 복부 중앙에서 우측 옆 갈비뼈 깊숙한 곳에 두개의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장기이다. 단일 장기로는 인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몸무게의 약 1/13을 차지하며 속과 겉질이 구별되지 않고 거의 균일한 단백질의 주성분인 간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커다란 장기는 거의 다 미세한 망상혈관(網狀血管)으로 된 특수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기능들을 살펴보면 혈액을 생산해내는 조혈작용(造血作用)과 노쇠(老衰)된 혈액을 파괴시켜 처리해 버리는 파혈작용(破血作用), 체내 외로부터 흡수되는 모든 성분들을 취사선택하며 어지간한 독소는 제거하거나 안전한 물질로 변환시키는 해독작용, 담즙 등 소화효소를 만들어 분비하는 작용, 섭취한 탄수화물을 '글라이코겐'으로 변환시켜 저장한후 필요할때 다시 꺼내 쓰거나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영양저장작용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과로·과음등 간기능 악화 부추겨
위생적 식생활·예방검진 등 필요

특히 알콜은 위벽을 통해 직접 간으로 또는 소장을 통해 간으로 집중되게 되어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된 후 체외로 배설되게 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숙취나 과음은 간장 처리기능의 한계를 넘게 되어 간경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더구나 간염 등으로 약해진 상태하에서의 음주는 절망적으로 상태를 악화 시킬 수 있다.

또한 간장은 신경분포가 희박해서 상당히 병세가 진행될 때 까지도 통증없이 그 기능을 나름대로 묵묵히 수행하므로 '멍청한 장기'라고까지 불려지고 있어 사전 예방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간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A, B, C, D, E…형 등 각종 간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의 침범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주로 환자와의 접촉이나 음식물을 통한 감염과 수혈, 수술, 주사나 침 등의 비위생적 사용 등을 통해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된다.

간염은 문자 그대로 간이 조금 붓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앞서 말한 바이러스나 기타 자극요소가 침범하면 자체적으로 싱을 내며 대응하는 현상이다. 이때는 간 자체가 긴장하고 혈류량의 증가와 G.O.T.나 G.P.T 등 효소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급성간염상태가 되며 심한 경우에는 황달 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간염은 급성상태에서 대부분 치유되지만 일부의 경우 완치되지 못하고 만성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제대로 철저한 치료를 못해 주거나 과로 등으로 간을 편히 쉬게 해주지 못하는데서 진행된다.

윤 율 상 〈한의학 박사〉

아들 부처님 ④

주부신행담

일곱명이 책모으기 동분서주
한달만에 청소년문고 1천여권 비치
"최고부자된 느낌에 가슴뿌듯"

겨울이 성큼 다가서고 있었다. 나는 법당에 청소년문고를 만들기 위해 뛰어 다니고 있었다. 우선 취지를 적어 법당과 절에 게시했고 책을 보시할 분은 서슴지 말고 연락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도 집에 있는 책들을 정리해 절에 기증했다. 아니 청소년문고의 첫 도서로 기증을 했다. 헌책방에 가서 싼값에 좋은책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청계천 고서점들을 훑기도 했다. 그러나 혼자하기에는 힘든 일이었다. 시간을 내는 것이나 책값을 대는 일이나 모두 내 형편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내가 시작한 일이니 최선은 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절에 내가 하는 일이 금방 알려졌고 스님은 나 혼자 뛰는 것이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하시더니 법회에서 청소년문고 불사를 공론화시켰다.

"혼자 뛰는 것 보다야 여럿이 뛰면 낫지요."

스님은 법회때 나의 생각을 소개하고 청소년문고 불사에 동참할 사람을 모았다. 모두 일곱명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우리는 겨울방학전에 문고를 열기로 했다. 각자 인연 닿는대로 책을 기증받고 보시도 받기로 했다. 처음에는 책이 제법 잘 들어왔다. 그러나 무조건 청소년문고에 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스님이 책을 선별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 많은 책을 검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보름정도가 지나고 우리 일곱명이 스님을 도와 책을 나눠서 대강 검토하고 보니 3백여권이 선정됐다. 우리는 이렇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진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3천권이라는 목표가 설립되었고 도서수집 방법도 좀더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 스님은 "이것도 불사인만큼 신심을 흐트려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일곱명이 함께 기도를 하는게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다.

우리는 거의 매일 절에 나가 만나면서도 부처님전에 삼배만 하고 바로 도서수집 일에 대한 얘기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사흘은 108배를 하는 날로 정하고 절을 하며 청소년문고 불사가 잘 되길 빌었다. 한달이 지날때까지 목표의 3분의 1, 그러니까 1천여권 가량의 책이 모아졌다. 방학은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진척이 거의 없었다.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에 다가서 버린듯한 느낌에 불안했다. 절에 기증되는 책도 없었고 전화를 하거나 찾아갈 곳도 더이상 없었다. 책꽂이에 꽂아 두고 읽지는 않으면서 선뜻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책이다. 버린다 버린다 하면서도 이사할때는 낑낑거리며 싸들고 가는 것이 책이다. 돈 들여 사려면 얼마든지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럴 형편은 아니었고 더구나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다고 보는데요."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지만 모두들 더할 용기도 없고 그만두기에는 아쉽고 그런 표정이었다.

"우리가 겨울방학전에 문고를 열자고 한 것은 아이들이 방학때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책이 모아졌고요. 그러나 청소년문고 오픈은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만두는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한술 돌리고 천천히 3천권을 목표로 달려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힘을 얻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른다. 아무튼 나의 말로 그날의 회의는 마감됐다. 일단 문고는 이쯤에서 열고 시간을 두고 계속 책을 모으고 관리하기로 하기로 했던 것이다.

연말, 아이들은 방학을 했고 청소년문고는 새로운 관심거리였다. 청소년문고 운영 개시 법회를 특별히 마련하고 학생들과 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런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더욱 뜻깊었다. 법회전날 나는 다시 청소년문고 책꽂이에 꽂아 구하다 보니 한계라는 것이 빨리 다가온 것이었다. 너무 많은 양을 목표로 세웠는가하는 후회도 없지 않았다. 어느날 모임에서 그런 서로의 생각을 털어 놓는 기회가 마련됐다.



그림 · 이준석

"이만하면 애들이 읽을만한 책은 충분히 모아졌으니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지요. 목표를 세웠으니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더 해야지요."

"그 목표란 것이 중요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싶은 책만을 선별해 구하다 보니 한계라는 것이 빨리 다가온 것이었다. 너무 많은 양을 목표로 세웠는가하는 후회도 없지 않았다. 어느날 모임에서 그런 서로의 생각을 털어 놓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만하면 애들이 읽을만한 책은 충분히 모아졌으니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지요. 목표를 세웠으니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더 해야지요."

"그 목표란 것이 중요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지만 모두들 더할 용기도 없고 그만두기에는 아쉽고 그런 표정이었다.

"우리가 겨울방학전에 문고를 열자고 한 것은 아이들이 방학때 좋은 책을 많이 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책이 모아졌고요. 그러나 청소년문고 오픈은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만두는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한술 돌리고 천천히 3천권을 목표로 달려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힘을 얻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른다. 아무튼 나의 말로 그날의 회의는 마감됐다. 일단 문고는 이쯤에서 열고 시간을 두고 계속 책을 모으고 관리하기로 하기로 했던 것이다.

연말, 아이들은 방학을 했고 청소년문고는 새로운 관심거리였다. 청소년문고 운영 개시 법회를 특별히 마련하고 학생들과 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런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더욱 뜻깊었다. 법회전날 나는 법회를 준비하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안 보는 책이 있으면 내놓으란 억지아닌 억지를 부리던 일, 다리가 아픈것도 모르고 청계천 고서점가를 돌던 일, 저희반 친구들에게서 얻어 왔다며 10여권의 책을 내 놓던 승호의 대견스러운 모습 등의 기억이 나를 세상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법 성 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 As this living body is so is that dead one, as this is so that will be; let one put away desire for the body, both as to its interior and as to its exterior.

저 죽은 시체도 얼마 전까지는 살아 있는 내 몸뚱이와 같은 것이었다. 살아 있는 이몸도 언젠가는 죽은 저 시체처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알고 안팎으로 몸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 Such a Bhikkhu who has turned away from desire and attachment, and is possessed of understanding in this world, has already gone to the immortal peace, the unchangeable state of Nibbana.

이 세상에서 애욕을 떠난 지혜로운 수행자는, 죽지 않고 편안하고 멸하지 않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

♦ This body with two feet is cherished although impure, ill-smelling, filled with various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㊺

kinds of stench, and trickling here and there.

인간의 이 육신은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므로 꽃이나 향으로 은폐되어 있다. 그렇지만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어 여기저기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다.

♦ He who with such a body thinks to exalt himself or despises others - what else is this but blindness.

이런 몸뚱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자신을 잘난체 뻐기거나 남을 깔본다면, 그는 소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put away ~할 생각을 버리다, ~을 치우다, 자축하다 (save), 포기하다(discard)
*exterior (a) 안의, 내부의 (opp. exterior 외부의, 밖의)
*turn away ~을 물리치다(expel)
*attachment (n) 애착
*be possessed of ~을 소유하고 있다
*immortal (a) 영구한, 불멸의
*nibbana (빠알리어) 열반, 해탈, 적멸
*cherish (신앙·추억 등을) 품다, 고이 간직하다
*stench (n) 불쾌한 냄새, 악취(= ill-smelling)
*trickle (v) 똑똑 떨어지다, 졸졸 흐르다
*exalt (v) (신분·지위 등을) 높이다, 고상하게 하다
*blindness (n) 무지, 맹목, 무분별

오종욱 기자

btn

감동과 흥분의 대서사시 대하 다큐멘터리
티베트불교 15개



4년여에 걸친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1부 만다라에 새긴 염원
2부 해발 5천미터의 기도
3부 마른땅에 핀 연꽃
4부 세월의 영고 대지의 성쇠
5부 신선하게 불어 온 개혁바람
6부 환생하는 링포체
7부 등신불의 비밀
8부 천백억으로 나투는 화신
9부 옴 마니 반메 훔
10부 금강승으로 가는 길
11부 신심으로 빚은 예술
12부 자비의 얼굴
13부 신비의 사원들
14부 거룩한 믿음의 도구
15부 진리의 보고
16부 신앙으로 얻은 지혜
17부 피안으로 가는 지혜
18부 존경받는 스승들
19부 구도의 길
20부 하안가사의 라마승
21부 여성수도자의 삶
22부 포교를 위한 축제
23부 칼라차크라
24부 춤추는 사람들
25부 세시풍속
26부 유 월 제
27부 티베트인의 의식세계
28부 아! 라사
29부 중원에 핀 만다라
30부 세계의 심장

구입방법:전화주문
불교TV (외환 VISA카드)카드로 구입시 5%할인, 할부가능

지혜의 빛 자비의 샘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구입 문의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140 다보빌딩
TEL: (02) 3272-0781~5 FAX: (02) 716-0341